



서울大同會報

2001년 11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284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a.or.kr>

발행인 金在淳/편집인 孫一根/편집주간 李世震/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702-2233·FAX: 703-0755



모교 최고자문위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공개 포럼



헨리 로즈스키 (前하버드대 문리대학장)



마이클 코완 (캘리포니아대 학술원 회장)



하스미 시게히코 (前도쿄대 총장)



단 제이콥스 (前노스웨스턴대 경영대학원장)



총장 및 보직교수와 함께 한 내부 회의

〈커버스토리 14면〉



로드 옥스버러 (前임페리얼칼리지 총장)



휴고 소넨샤인 (前시카고대 총장)

해외 자문위원들의 비전 기대된다

관약추추

지금 모교 서울대는 도약을 위한 용트림을 하고 있다. 「서울대가 이래서는 안된다」는 오랜 자성과 아우성 끝에 드디어 변혁의 큰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움직임이 「블루리본 패널(blue ribbon panel)」로 일컬어지는 최고자문위원단의 활약이다. 해외 우수 전현직 대학총장과 학장들로 구성된 블루리본 패널은 지난 10월 8일~11일 나흘간 1차 활동을 벌였고 서울대를 일약 세계 40위권으로 끌어올리려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 40위라면 자칫 별 것 아닌 것으로 들릴지 모르나 지구상에 있는 수천개의 대학 중에서 서울대가 40위의 위상을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세계의 대학으로 웅비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원대한 미래를 개척해 나갈 대장정의 길목에서 이번 블루리본 패널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는다.

구성 면면을 보면 세계 최정상급의 대학경영자들이다. 의장을 맡은 헨리 로즈스키 전 하버드대 문리대학장, 마이클 코완 캘리포니아대 학술원 회장, 하스미 시게

히코 전 도쿄대 총장, 단 제이콥스 전 노스웨스턴대 경영대학원장, 로드 옥스버러 전 임페리얼칼리지 총장, 휴고 소넨샤인 전 시카고대 총장 등 모두 국제 교육계의 「인물」들을 알 수 있다. 헨리 로즈스키 의장은 뛰어난 학문적 업적과 활동으로 세계 우수 대학으로부터 받은 명예박사학위만도 15개에 이를 정도다.

이 기회에 서울대가 국가와 시대를 선도하는 민족의 대학으로서 확고한 위상과 기능을 확립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혁 이뤄지길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고대한다.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을 지탱해주는 지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적도 우방도 없는 필사의 경쟁시대를 맞고 있는데 과연 서울대가 세계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재목들을 길러내고 있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과학적이고 치밀한 분석을 거쳐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90년대 들어 YS정부 때, 서울대는 세계 대학서열에서 7백위 밖에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고 이런 처지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서울대의 인사와 예산의 자율성이 선결조건이라며 특별법제정을 밀어 부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당국의 무지와 타대학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일을 하자면 좀더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설득력의 구비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급속도로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는 이 시기에 서울대에 외국인 교수가 단지 4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도쿄대는 1백명이 넘는다는데, 또 서울대 졸업의 서울대 교수가 90퍼센트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서울대적 폐쇄주의를 느낀다. 재정의 문제도 심각한 난제다. 서울대의 연간예산은 3천5백억, 도쿄대는 연 3조, 하버드대는 2조5천억이다.

학생선발과 교과과정, 교육방법은 어떤가 『모차르트가 서울대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자문단이 서울대 입시제도를 분석하면서 던진 말이다. 가벼운 쇼크와 함께 여러 가지로 여운을 남긴다. (煥)



2차선 도로를 달릴 때 앞차가 느림보 운전을 하면 뒤따르는 많은 차들이 지체되어 답답해한다. 앞서가는 느림보 차가 얼른 알아차리고 길을 비켜주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갈 수 있고 교통 소통도 원활하게 될텐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질 않는다.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야 어찌되던 내 가 알 바 아니라는 배짱이다. 다같이 늦게 가자는 심보임에 틀림없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마찬가지다. 주행선으로 달려야할 차들이 자주 추월선으로 달려들어 빨리 가야 할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다. 추월선으로 가지 않아도 될 소형차나 중형차도 추월선으로 끼어 들고 심지어 승합차나 화물차까지도 끼어 들어 달리고 있다. 이러다 보니 주행선보다 추월선에 차가 더 많을 때가 많다.

추월선은 주행선으로 달리다가 추월할 필요가 있을 때 달리도록 되어 있는데도 너도나도 추월선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스피드를 내야할 차량이나 추월해서 빨리 가야 할 차량들이 불편하기 짝이 없고 추월선 차량보다 주행선 차량이 더 빨리 달리는가 하면 성질 급한 사람들은 이 차선 저 차선 가리지 않고 꼭 예운전을 하게된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이렇게 주행질서가 엉망이다 보니 고속도로 운행이 얼마나 위험스러운가? 좋은 차 타고 빨리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차선을 양보하고 자기분수에 맞는 차선을 따라 운전하면 될 것을 느림보로 가면서도 구태여 추월선에 합류하고 싶은 심정은 무엇일까?

나도 너 같은 부류에 낄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배짱일 게다. 「너 하는데 내가 왜 못해」 하는 생각은 한편으로는 좋게도

생각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모하기 짝이 없을 때가 많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도 할 수 있다(can do)는 생각은 무모하게 덤벼드는 것하고는 구별해야한다. 「can do」생각은 능력과 노력이 뒷받침 될 때 인정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의지만 가지고 대든다면 엉뚱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그 부류에 끼고싶다」는 생각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자칫하다간 앞서가는 사람을 시기하고 헐뜯고 끌어내리려는 심보가 작동하게 된다. 요즘 우리 주위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꽤 많다. 노력해서 앞서 가는 사람을 쫓아가기보다는 앞서가는 사람을 끌어내려 같이 가려는 심보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 풍조가 만연되다보니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조차 이와 비슷한 시책들을 내놓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언론시책에서도, 기업정책에서도, 교육정책에서도 하향평준화를 조장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아주 특출하게 앞서나가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공지를 갖게 해주고 신바람나게 해주는 그런 사회라야 발전해갈 수 있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피곤하게 하는 사회는 선진으로 갈 자격이 결여된 사회다. 1등을 끌어내려 2등 하는 사람이 1등이 되고, 그 1등을 또 끌어내려 3등 하던 사람이 1등을 한다면 그 사회는 3류가 돼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는 빌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없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은 더욱더 생겨날 수 없다고 푸념하는 소리를 우리는 다같이 생각해 볼 일이다.

(본보 논설위원)

하향평준화 발상



金鍾勳
매일경제신문 이사

동문칼럼

한글애용이 국어문법 망친다

광복이래 88년까지 50년간이나, 국어 사전들과 국정교과서가 〈같습니다〉를 〈같읍니다〉로 표기·시범하며, 읽는 소리는 〈갓습니다〉로 소리내라고 가르쳤다. 이 괴이함을 어느 학자나 국어 교사도 그 시정을 제언하는 이가 없었다. 필자는 이 오류를 지적 15년간 문교부 편수관과 씨웠다. 88년에야 남광석 교수의 동조를 얻어 개정을 보게 됐다.

최현배 박사의 「우리말본」의 두 가지 착오, 즉 〈…지다〉의 선어말 어미 〈…지…〉를 피동접사로 잘못 규정한 탓으로, 영·일어의 피동태가 팽배한 물결을 타고, 우리말 속의 피동태 남용이 요원의 불길로 번졌다. 「모였다」면 될 것을 「모여졌다」, 「모아지다」로 망발한다. 〈…지…〉는 본시 형용사의 보조용언으로, 「起動접사」라는 설이 있으나, 필자는 변천상·완료상으로 「時相접사」라고 본다.

예로 〈높아지다·고와지다·좋아지다·나빠지다·착해지다〉 등등으로 거기에는 변화의 뜻은 있어도 피동의미는 없다. 또 하나는 〈호칭받다(되다)〉라는 뜻으로 〈불리우다〉로 표기했던 것. 〈부르다〉의 피동은 〈불린다·불려진다〉이고, 〈…이우…〉 선어말 어미는 시킴꼴(使役)접사이거늘, 한글학의 泰斗가 위의 2대 과오를 씨뿌렸었다.

90년대부터 한글학회 산하 단체 「먹거리학회」는 〈食料品·食材〉뜻으로 〈먹거리〉라는 문법탈선 어휘를 퍼뜨려, 방송용어까지 더럽혀도 한 자어를 대체하는 것만 공로로 보아, 〈아름다운 토막말〉이라고 「한글새소식誌」에서 찬양했다. 〈먹…〉이란 동사어간은 〈…거리〉라는 형식명사를 바로 수식하지 못하는 법이다. 동사는 관

형팔로 고쳐 〈먹을…〉로 해야 명사 앞에 올 수 있다.

〈回想하다〉를 〈생각이 떠오르다〉는 좋으나, 〈추억을 떠올리다〉가 마구 남용됨은 문법문란 폐단이다. 〈떠오르다〉본동사의 원꼴은 〈뜨다〉인 바, 〈해뜨다·풍선이 뜨다·발효하다·사이가 뜨다〉뜻의 자동사이다. 〈해가 떠오르다·배가 떠있다〉와 같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다〉는 본동사나 보조동사가 다같이 자동사끼리이니, 조화합성이 되지만, 〈떠올리다〉의 경우는 보조동사 〈…올리다〉가 타동사이므로 조화 안된 語不成說이다.

〈띄어쓰기〉도 〈…쓰기〉는 타동사이므로 자동인 본동사를 시킴꼴(타동화)로 해서 〈띄우어쓰기〉=〈띄워쓰기〉라야 조화를 이룬다.

〈배가 떠있다〉는 되지만 〈배 떠 놓아라〉는 탈문법이다. 〈끼어들기〉로 「他+自」이므로 〈끼어〉를 피동화 〈끼이어=끼여〉해야 〈끼여들기〉로 조화 성립한다. 〈끼어입다·끼어안다〉는 조동사들이 타동사라서 조화를 이룬다. 〈바위틈에 끼여 자라난 진달래〉, 〈책갈피 사이에 끼여 있는 편지〉 등은 자동사끼리이니, 조화 합성되는 어법이다.



徐康和
(74년 新大院卒)
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

주요목차

건강을 지킵시다3면	화제의 동문11면
羅璣煥 백세당한의원장	朴禰善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고문
추억의 창3면	동문기업 탐방12면
鄭用文 서울심포니 이사	나모 인터랙티브
동문을 찾아서8면	서울대 가족13면
尹興烈 세계치과의사연맹 차기 회장	李成海 Duke F.D. 회장
동문을 찾아서9면	모교 소식14~15면
洪淳昊 육군 2군사령관	제55회 개교기념식
지부 순례10면	SNUA OPINION LEADER18면
오래곤 지부	劉龍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기과 순례10면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22면
언어학과 동창회	金佑貞(金光明동문 장녀)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계절입니다.

지난 1년간 보내주신 정성과 후의에 감사드리며 동창회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지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니 조그만 정성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들께는 2002년도 포켓용 다이어리를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지킵시다

건강을 부르는 참보약

40세 초반의 남자가 직장의 과다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자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피곤해 하자, 장모님께서 사위를 사랑하는 마음에 개소주를 해 주었는데, 복용 후 뇌출혈을 일으킨 경우와 70세 여자분이 평소 기운이 없었고 저림을 호소하여 흑염소를 해드렸는데, 복용 후 오히려 설사를 하고 복통을 호소해 『모처럼 생각해서 해드린 건데...』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었다.

장모의 사위 사랑과 출가한 딸의 부모사랑이 정확한 진단이 배제된 채, 『그냥 보약』의 복용으로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선의가 악으로 변한 경우가 아닌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하듯, 보약 복용 시에도 허즉보(虛則補) 실즉사(實則寫) - 「부족하면 도와 올려주고, 남으면 덜어 내려준다」는 한의학적 대원칙이 있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가 병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한다.

체질과 증상이 고려되지 않고 허하지도 않은데, 진단이 배제된 채 보약 및 보양식을 임의로 남용하고 오용함은 오히려 독이 되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강조 드리고 싶다. 예를 들어 인삼이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은가? 한의학적으로 인삼은 소음인에게는 이로운 약이지만 소양인이나 열이 많은 태음인은 오히려 복용 후 머리가 무겁다던가, 혹은 더 기력이 없다는 등의 호소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한약은 한의학



羅璣煥(22기 AIP)

백세당한의원장·경희대 겸임교수

적 원리에 의하여 진단되어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투여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한약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한약을 복용 시에는 단순한 보약보다는 올바른 나의 체질을 알고 그에 따른 올바른 치료를 위해 한의사의 진단을 권하고 싶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해야 몸도 건강하다는 것과 아무리 좋은 명약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약은 마음의 보약이 참보약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욕치기질(欲治基疾) 선치기심(先治基心) - 「병을 치료하고자 함에 먼저 그 마음을 다스리자」이라 함은 마음의 중요성을, 불치이병(不治已病) 치미병(治米病) - 「이미 든 병을 치료하지 아니하고 병이 들기 전에 다스리자」이라 함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외부에서 찾는 것보다 내면에서부터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의 특이성을 인정하여 매일매일의 양생과 습관에 다름이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참된 보약이 되는 것이다. 21세기를 心醫 - 「마음을 다스리는 참 醫者」의 시대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

(연락처 : 933-1033)

추억의窓

「낙동강」 소주로 피난 생활의 시름 잊어
환호 속에 열린 전함 「미주리」호 연주회

鄭用文(55년 音大卒)서울심포니 이사

1951년 입학의 기쁨도 잠시, 6·25전쟁으로 산산이 깨어지고 모두 피난길에 올랐다. 나도 대구로 피난을 갔다. 다행히 그곳에는 공군정훈음악대가 생겼고 이곳에 내려온 음대동문들이 군에서 마련한 중학교 교실에서 숙식하며, 임시 대구분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일마 후 모두 부산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부산에는 송도 앞 바다가 멀리 보이는 언덕에 관자집 두세 채가 지어지고 정식 음악대학 분교로 자리 잡았다. 학장은故 玄濟明박사이시고 이곳에 온 여러 교수님들이 계셨다.

부산에는 규모가 큰 해군정훈음악대가 있어 교향악단, 합창단, 솔리스트 등 2백명에 가까운 원로음악인, 교수님, 음대 선배 동문들이 모두 모였고 군에서 접수한 2층 큰 여관 전체를 숙소로 하였다. 주로 서울음대 교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음대 기숙사나 다름없었다. 후에 대구에서 내려오신 金聖泰교수께서 해군정훈음악대장이 되셨다.

행사의 시간에는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었고 만원버스 참 너머로 시민들의 어려운 삶도 보았다. 월남한 북한 난민, 각지에서 내려온 피난민 모두 뒤엉켜 매우 복잡하였고 귀향 때까지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우리 숙소는 부산에서 가장 큰 국제시장에 가까워서 2층 창문을 통해 열심히 뛰는 시장 상인들도 볼 수 있었고 끔찍한 국제시장 대화

재도 곁에서 보았다. 일과가 끝나면 캠퍼스 숙소 내의 여러 방에서는 삼삼오오 선후배들이 모여 소박한 안주에 당시 부산에서 판매하던 낙동강 소주잔을 기울여 향수를 달랬던 기억이 생생하다. 유엔이 시민들을 위한 연주도 여러 번 미문화원 공보홀에서 가졌다. 비상 전시 상황이므로 시내에서는 지금과 같은 자유분방한 젊은 남녀를 볼 수 없었다. 시장 내에서 오가는 행인과 다투는 상인을 보며 가끔 간식도 할 수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2차 대전 때 용맹을 떨친 미국이 자랑하는 전함 「미주리」호가 한국전에 참전해 잠시 부산 앞 바다에 닻을 내리고 우리 단체를 초대했다. 일본에 항복조인을 받았던 바로 그 자리인 배의 후미 갑판에서 음악회를 열었던 것이다. 전함 내 식당에서 식사대접도 받았고 선물도 받았다.

차츰 전쟁도 휴전에 가까워 그리던 서울로 오게되어 음대도 동송동 문리대 캠퍼스 내에 자리를 잡았다. 해군정훈음악대가 환도 후 해군교향악단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완전히 종전되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되었다.

차츰 서울 명동거리에도 활기를 되찾아가고 젊은이들의 휴식처가 된 음악감상실 「돌체」에서는 돌아온 젊은 대학생들이 피난처에서의 추억을 꽃피웠으며, 고생은 되었어도 잊을 수 없는 피난처에서의 낭만도 있었음을 되새

겼다. 모든 일들이 정리 돼가고 시내 곳곳의 전운도 씻겨가고 있을 무렵 졸업이 닥쳤다. 20세기를 넘지 못하고 곁을 떠난 선후배의 얼굴이 어른거린다.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엇그제였는데... 모교가 있었기에 나는 지금도 무대를 오르내리며 연주를 한다.



서울 환도후 동기들과 함께.(오른쪽 두 번째 필자)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 한마당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에 모여 접수를 마친 뒤.



녹음이 드리워진 산길을 걸으며.



차례차례 맛있는 점심과 음료를 받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마치고.



풍물패의 흥겨운 연주를 감상하고.



푸짐한 경품도 타고.



풍선 옮기기로 부부의 금실을 확인해보고.



어린 자녀들의 모래주머니 던지기도 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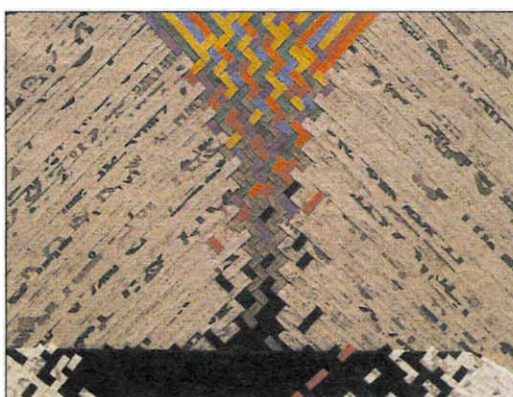
단체줄넘기로 체력을 확인해보는데.

미술작품

崔英子 作

◆ 작가약력 ◆

- 67년 모교 미대 응용미술과 졸업
- 79~97년 한국공예학회 창립전
- 82~86년 국제 아세아현대미술전
- 82~91년 현대미술초대전
- 84~97년 한국섬유비엔날레
- 91~98년 개인전 3회
- 96년 세계여성작가전
- 97년 미술세계 표지 작가전
- 경북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 현재 대구효성가톨릭대 공예과 교수



「나랏말싸미 98-7」, 면·마테이프, 프린팅, 엮어 짜기 50×38cm, 1998.



우리 가족 춤 숨씨 한번 보세요.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 대성황

金회장 “心機一轉, 내일 위한 에너지 저축하길”



본회는 지난 10월 21일 3천여 명의 동문과 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흙커밍데이 겸 친목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오전 8시부터 관악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접수를 마친 동문가족들은 黃秉翼동문의 주옥같은 가야금 연주곡이 담긴 CD를 기념품으로 받고 모교 재학생들의 인솔로 등반을 시작했다.

이번 등산은 모교 신소재공동연구소 앞에 마련된 입구를 통해 관악산에 접어들어 아카시아동산, 관악산 계곡, 무너미 고개를 넘어 농생대 수목원으로 향하는 코스로 이루어졌으며, 동문들은 약 6km를 산행했다.

안양의 농생대 수목원 잔디밭에 도착하여 준비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시작된 1부 의식행사에서 그린힐리온동연합 및 明(66년 工大卒)총재가 참석한 가

운데 裴庚洪(56년 齒大卒)동문의 외손자 권민재(대림초교 6학년)군이 그린스카우트 선서를 했다.

金在淳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나무가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무와 대화를 나누고, 푸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감상하며 모처럼의 등산대회에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심기일전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분히 저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등산대회사 7면 참조>

모교 李基俊총장은 축사를 통해 『등산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교와 동창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모교와 관련해 『훌륭한 졸업생들을 배출하기 위한 계획 중 하나

로 동문 여러분을 상대로 실시하게 될 껍질 조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는 모두 모교 발전을 위한 자료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 특별히 초대된 재미동창회 吳仁錫명예회장은 『7천여 명의 동문으로 구성된 재미동창회는 모교 및 후진을 위한 1백만 불 기금 모금을 벌여 현재까지 74만 불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우리 동문들은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 미국 사회 및 한인 교포 사회의 모범이자 추앙 받는 시민이 되겠다』고 피력했다.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의 행사 경과보고에 이어 본회 수석 부회장이자 공대동창회장인 林光洙(52년 工大卒)동문이 농업생명과학대학 李景俊(71년 農大卒)수목원장에게 나무이름패 제

작지원비를 전달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蔡賢九(82년 師大卒)동문과 백나운(音大 성악과 4년)양이 2부 「친목과 단합의 시간」 진행을 맡았으며,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동작고교 풍물반 단원들이 길놀이 공연으로 멋진 우리 고유의 가락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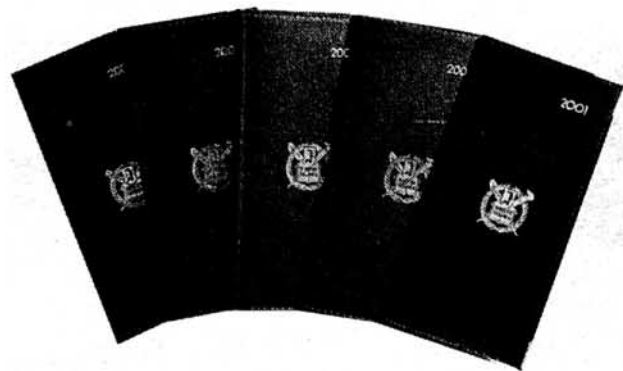
특히 이날 행사에서 법과대학, 수의과대학, 치과대학, 경영대학원, 보건대학원, 신문대학원, 환경대학원 및 수원지부 동창회가 단체 줄넘기 대회에 참여, 젊은 후배동문들이 대거

출전한 치과대학이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동문부부의 애정을 테스트하는 풍선 함께 옮기기, 훌라후프 돌리기, 어린이 모래주머니 던지기, 가족대항 댄스경연대회, 빙고게임 등으로 동문가족 전원이 단합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를 위해 金道沔·金相廈·白文基·姜信浩·具平會고문을 비롯해 2백90여 명의 동문이 협찬해주었다. <협찬자 명단 6~7면 참조>

특히 많은 동문가족들의 관심을 모은 경품추첨에 있어서 롯데관광 金基炳회장이 협찬한 등남아 여행권은 金基光(71년 師大卒)동문이, 본회 孫一根상임 부회장이 협찬한 디지털 카메라는 정준모(96년 人文大卒)동문에게 돌아갔다. <表>

2002년 DIARY를 발송해 드립니다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급가족으로 양장제본하고 금박과 금장을 입힌 「포켓용 DIARY」를 제작,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2001년의 설계와 구상을 동창회 DIARY에 기재하여 멋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동창회 DIARY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이사, 일반 포함) 여러분께 11월 중순부터 우송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동창회를 사랑해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제4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 및 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아래 시상부문에 따라 제4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시상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협력」「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 1) 접수마감 : 2002년 1월 31일
 - 2)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 702-2233·팩스 : 703-0755)
4. 시상 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2002년 3월 15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金在淳 · 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一 根

등산대회 협찬 동문

지난 10월 21일 모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수목원에서 거행된 친목등산대회는 3천여 명의 동문가족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뤘고 참가자들은 풍성한 가을을 한껏 만끽하며 흥겨운 하루를 보냈다.
친목등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준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를 위해 협찬금·품을 출연해주신 각계 동문들을 소개한다.

— 지면 관계로 동창회 임원분들만 사진 게재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道현
47년 法大卒·本會顧問
변호사
일금 50만원



金相廈
49년 文理大卒·本會顧問
대한상공회의소 명예회장
일금 50만원



白文基
50년 美大卒·本會顧問
예술원 회원
일금 50만원



姜信浩
52년 醫大卒·本會顧問
동아제약 회장
음료수 2천켤



具平會
51년 文理大卒·本會顧問
LG그룹 고문
일금 50만원



金在淳
51년 商大卒·本會會長
샘터사 고문
오디오 1대



李基俊
61년 工大卒·本會名譽會長
모교 총장
페이퍼매직 1백50개



孫一根
51년 法大人·本會常任副會長
한국일보 상임고문
디지털 카메라 1대



林光洙
52년 工大卒·本會首席副會長
임광토건 회장
양식기 20SET



鄭哲圭
52년 工大卒·本會副會長
신양문화재단 이사장
일금 50만원



李聖秀
52년 師大卒·本會副會長
한국정책평가원 회장
일금 50만원



李達雨
53년 工大卒·本會副會長
한국코트렐 회장
일금 50만원



卞周浩
53년 文理大卒
RTN 회장
골프시계 40개



朴晟容
50년 文理大人·本會副會長
금호그룹 명예회장
동남아 항공권 1대



韓斗鎭
56년 醫大卒·本會副會長
한국병원 원장
일금 50만원



方孝宣
55년 文理大卒·本會監事
세무법인 성광사 회장
일금 30만원



李信子
55년 美大卒·美大同窓會長
갤러리 우덕 고문
일금 50만원



李吉女
57년 醫大卒·本會副會長
경원대 총장
일금 50만원



金貞植
56년 工大卒·本會副會長
대덕전자 회장
일금 50만원



閔丙峻
56년 師大卒·本會副會長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일금 50만원



李龍兌
57년 文理大卒·本會副會長
삼보컴퓨터 회장
일금 50만원



李會昌
57년 法大卒
한나라당 총재
일금 50만원



趙南煜
57년 法大卒·本會副會長
삼부토건 회장
일금 50만원



李晟遠
58년 工大卒·冠岳會理事
청소년 도서재단 이사장
일금 50만원



權景坤
60년 藥大卒
현암약국 대표약사
구급약품 15SET



金讚淑
60년 齒大卒·本會副會長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일금 50만원



陸寶根
61년 文理大卒·自然大同窓會長
대림섬유 회장
일금 50만원



孫京植
61년 法大卒·本會副會長
제일제당 회장
참기름 100개



尹世榮
61년 法大卒·本會副會長
SBS 회장
29인치 TV 1대



梁源植
61년 齒大卒·齒大同窓會長
前모교 교수
일금 50만원



吳仁錫
62년 法大卒·本會副會長
재미총동창회 명예회장
VTR 겸 DVD 1대



姜敏求
62년 行大院卒·本會副會長
유성개발 회장
수저 5SET



姜榮國
63년 工大卒
부산파라다이스비치호텔 사장
호텔숙박권 2대



金鮮東
63년 工大卒
S-Oil 회장
주유권 1백매



沈利澤
63년 工大卒
대한항공 사장
국내 항공권 2대



安相英
63년 工大卒
부산광역시장
일금 50만원



洪性大
63년 文理大卒·本會副會長
상산학원 이사장
문화상품권 50매



孫吉丞
63년 商大卒·本會副會長
SK 회장
워커힐 식사권 5매



禹德昶
63년 商大卒·經大院同窓會長
前쌍용그룹 부회장
일금 50만원



李典九
64년 農大卒
뉴욕골프센터 사장
일금 50만원



韓光玉
60년 文理大人·本會副會長
새천년 민주당 대표
일금 50만원



崔秉烈
64년 法大卒·本會副會長
국회의원
일금 50만원



卞柱仙
64년 師大卒·本會副會長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일금 50만원



洪性宙
64년 商大卒
전북은행장
일금 50만원



姜光彦
65년 工大卒
롯데물산 대표
롯데월드 이용권 30매



李哲雨
65년 農大卒
롯데리아 사장
식사권 30매



朴容晟
65년 商大卒·本會副會長
OB맥주 회장
맥주 3천켤



尹鍾龍
66년 工大卒
삼성전자 부회장
김치냉장고 1대



金東泰
66년 農大卒
농림부 장관
일금 30만원



權敎久
66년 法大卒
LG전선 부회장
전공청소기 3대



李淳鍾
66년 法大卒·AIP同窓會長
한화 사장
일금 50만원



沈薰
66년 商大卒
부산은행장
일금 50만원



林昌烈
66년 商大卒
경기도지사
일금 50만원



崔慶元
67년 法大卒
법무부 장관
일금 50만원



金基炳
67년 行大院卒·本會副會長
롯데관광 회장
동남아 여행권 1매



金基鏞
68년 農大卒·本會副會長
퓨리나코리아 회장
일금 50만원



李龍二
69년 商大卒·冠岳會理事
영원무역 사장
등산용 점퍼 10벌



尹洪九
70년 工大卒
동양매직 사장
커피메이커 10대



金正泰
70년 商大卒
주택은행장
일금 50만원



玄在賢
71년 法大卒·本會副會長
동양그룹 회장
가스오븐렌지 1대



金泓殖
71년 經大院卒
금복주 회장
소주 2천팩



洪錫炫
72년 工大卒·本會副會長
중앙일보 회장
일금 50만원



李大榮
72년 商大卒
금강제화 대표
상품권 5매



金周亨
73년 農大卒
제일제당 사장
제일제당 선물 20SET

陳大濟  74년 工大卒 삼성전자 사장 디지털캡코너 1대	崔炳敏  75년 文理大卒 대한필프 사장 물티슈 1천개 및 티슈세트	郭守根  77년 經營大卒·冠岳會理事 모교 발전기금 상임이사 일금 20만원	金河俊  77년 師大卒 해의개발 대표 건강보조제품 1백개	表文洙  74년 農大入 SK텔레콤 사장 휴대폰 2대	柳津  83년 人文大卒 풍산 회장 일금 50만원	金秉順  4기 AMP·冠岳會理事 한국구아노 이사 일금 50만원		
姜聖模  17기 AMP 린나이코리아 회장 가스오븐렌저 1대	鄭道憲  50기 AMP 종이나라 대표 어린이용품 2백개	鄭八道  1기 AIP·冠岳會理事 흥인 회장 일금 50만원	朴永淑  3기 CHCN·CHCN同窓會長 대한간협 서울지회장 일금 50만원	가정대학동창회 (회장 李義淑) 일금 50만원	간호대학동창회 (회장 朴明子) 일금 50만원	농과대학동창회 (회장 尹勤煥) 일금 20만원	문리과대학동창회 (회장 崔永喆) 일금 50만원	상과대학동창회 (회장 高炳佑) 일금 50만원
약학대학동창회 (회장 李禮植) 일금 50만원	음악대학동창회 (회장 金正吉) 일금 50만원	대학원동창회 (회장 金圭植) 일금 30만원	보건대학원동창회 (회장 金秀哲) 일금 50만원	신문대학원동창회 (회장 趙容直) 일금 50만원	천안지부 동창회 (회장 金明堉) 일금 20만원	애완견 진료권 10매 (회장 李成煥) 수의대 임상동문회		

협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權相澈 35년 師大卒
 宋仁相 35년 商大卒
 徐柱成 47년 商大卒
 池憲澤 47년 齒大卒
 安哲浩 49년 工大卒
 朴權相 52년 文理大卒
 趙完圭 52년 文理大卒
 李善俊 52년 師大卒
 安台鎬 53년 商大卒
 安亨一 53년 音大卒
 金德洙 55년 工大卒
 李正默 56년 工大卒
 張明洙 56년 工大卒
 河斗鳳 56년 文理大卒
 韓甲洙 56년 文理大卒
 李乃均 56년 商大卒
 鄭然世 57년 工大卒
 咸承浩 57년 工大卒
 金榮鎮 57년 農大卒
 申禹植 57년 文理大卒
 李大淳 57년 法大卒
 鄭仁奎 57년 法大卒
 朴重大 57년 商大卒
 李升雨 57년 商大卒
 朴熙伯 57년 醫大卒
 邊尙鉉 57년 醫大卒
 徐鎮根 58년 工大卒
 金永琪 58년 農大卒
 金光鉉 58년 法大卒
 金基亨 58년 法大卒
 李淳福 58년 法大卒
 徐德圭 58년 商大卒
 金秉麟 59년 工大卒
 曹圭大 59년 工大卒
 金璟東 59년 文理大卒
 朴世熙 59년 文理大卒
 申允植 59년 文理大卒
 魚漢秀 59년 文理大卒
 金永均 59년 法大卒
 許浚 59년 法大卒
 李錫條 59년 師大卒
 池昌壽 59년 商大卒
 孔大植 60년 工大卒
 李承俊 60년 工大卒
 黃海根 60년 工大卒
 朴鍾五 60년 文理大卒

高宗鎮 60년 法大卒
 李昌遠 60년 法大卒
 車鍾相 60년 獸醫大卒
 金圭甲 61년 工大卒
 金炯璧 61년 工大卒
 姜賢旭 61년 文理大卒
 林炯斗 61년 文理大卒
 柳時烈 61년 法大卒
 金東吉 61년 師大卒
 金相鎬 62년 文理大卒
 姜奎錫 62년 師大卒
 姜洙憲 62년 商大卒
 李佐榮 62년 商大卒
 吳城煥 63년 工大卒
 趙昌杰 63년 工大卒
 李道卿 63년 農大卒
 金德昌 63년 文理大卒
 李鍾哲 63년 美大卒
 權東烈 63년 法大卒
 鄭城鎮 63년 法大卒
 閔興基 63년 師大卒
 鄭玩鎬 63년 師大卒
 朴榮一 63년 商大卒
 朴英珠 63년 商大卒
 朴在潤 63년 商大卒
 李揆成 63년 商大卒
 李鍾郁 63년 醫大卒
 辛承根 64년 工大卒
 劉常夫 64년 工大卒
 趙炳祐 64년 工大卒
 許永燮 64년 工大卒
 嚴秉潤 64년 文理大卒
 李炯均 64년 文理大卒
 黃秀益 64년 文理大卒
 金榮秀 64년 法大卒
 邊在承 64년 法大卒
 宋哉憲 64년 法大卒
 李大公 64년 法大卒
 韓光世 64년 法大卒
 文炳學 64년 師大卒
 李梯龍 64년 師大卒
 金昇政 64년 商大卒
 成耆虎 64년 商大卒
 魚準 64년 商大卒
 尹永錫 64년 商大卒
 韓達鮮 64년 醫大卒
 劉心德 65년 工大卒
 李元道 65년 工大卒
 李林澤 65년 工大卒
 梁圭模 65년 文理大卒
 李鉉求 65년 文理大卒

南進 65년 法大卒
 柳仁義 65년 法大卒
 李千洙 65년 法大卒
 朱光逸 65년 法大卒
 安希洙 65년 師大卒
 李德鍾 65년 商大卒
 金孝淳 65년 音大卒
 尹正哲 65년 醫大卒

金聖中 66년 工大卒
 吳明 66년 工大卒
 南宮堅 66년 文理大卒
 朴建宇 66년 文理大卒

등산대회사

敬愛하는 서울大 同門 家族 여러분!
 母校 Campus를 지나 冠岳山을 넘어오는 氣分이 어떻습니까?
 都市脫出의 氣分이 어떠하십니까?
 淸명한 가을입니다.
 이처럼 맑은 空氣 속에서, 아름다운 自然 속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라는 것,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同門 여러분!
 높은 山꼭대기에 오르면 먼 곳이 보이지요! 서울大人은 눈앞의 가까운 것보다는 먼 곳, 먼 앞날을 봅니다.
 서울大人은 이 세상 아무리 險하고 거칠고, 야속하더라도, 氣胸 있는 선비의 길을 걸어갑니다. 氣胸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오랜 세월, 거칠고 險한 風土의 鍊磨 속에서 얻어지는 貴重하고도 아름다운 品格이지요.
 여기 樹木園에서 나무와 對話를 해보시지요. 나무가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眞理를 안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個個의 것에는 관심이 없지만, 오직 삶의 근본법칙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푸른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시지요.
 구름은 모든 彷徨, 探究, 慾望, 鄉愁의 永遠한 symbol이지요. Hermann Hesse는 人生살이의 本質은 저 구름에서 苦惱와 웃음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처럼 뜻있는 行事에 同參하신 母校의 李基俊 總長과 교직원 여러분에게 歡迎의 拍手を 보냅니다.
 그리고 Green-Family의 吳明 總裁와 이 行事를 위해서 友情어린 物品을 꾸집하게 보내주신 同門들께도 感謝의 拍手を 보냅니다.
 또 빠질 수 없는 것은 이 行事를 위해서 멀리 New York에서 오신 在美總同窓會 直前會長이신 吳仁錫 同門에게 뜨거운 歡迎의 拍手を 보냅니다. 그리고 始終 재미있게 이끌어 가는데 재치와 웃음을 주실 蔡賢九 同門과 백나운 양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서울大人 家族 여러분!
 모처럼의 登山大會에서 心身의 피로를 풀고, 心機一轉 來日을 위한 에너지를 充分히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同門間에도 友誼를 한층 돈독히 하여 母校의 發展에 힘있는 同窓, 國家大事에 큰 몫을 감당할 수 있는 同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大人들이여! 부디 健勝하시라!
 감사합니다.

2001년 10월 21일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朴容丸 66년 文理大卒
 林義信 66년 文理大卒
 洪宗浩 66년 文理大卒
 申明均 66년 法大卒
 柳寬熙 67년 農大卒
 崔文錫 67년 文理大卒
 金忠煥 67년 商大卒
 金賢坤 67년 商大卒
 李炳圭 67년 商大卒
 崔光鉉 67년 商大卒
 李燦河 67년 經大院卒
 趙武濟 67년 司大院卒
 朴聖炫 68년 工大卒
 崔正和 68년 農大卒
 金相應 64년 文理大入
 金日權 68년 法大卒
 崔鎬熙 68년 法大卒
 白吉雄 68년 師大卒
 朴容岐 68년 醫大卒
 朴勝彬 69년 工大卒
 李敦求 69년 農大卒
 閔茂一 69년 師大卒
 白純之 69년 齒大卒
 鄭鍾平 69년 齒大卒
 李秉宰 69년 經大院卒
 文玉綸 69년 保大院卒
 申權植 70년 工大卒
 趙忠燾 70년 工大卒
 尹錫虎 70년 農大卒
 金學元 70년 法大卒
 韓東禹 70년 法大卒
 朴閔泰 72년 工大卒
 吳鈺洙 72년 工大卒
 徐相燮 72년 文理大卒
 李麟載 72년 文理大卒
 愼重大 72년 法大卒
 曹貞植 72년 法大卒
 朴達洙 73년 工大卒
 金東根 73년 農大卒
 李廷植 73년 農大卒
 金仁圭 73년 文理大卒
 徐玉植 73년 文理大卒
 張惠實 73년 音大卒
 金鍾勳 73년 齒大卒
 朴祥均 73년 齒大卒
 沈勇燮 74년 農大卒
 李壽晤 74년 農大卒

元世勳 74년 法大卒
 申洵雨 74년 行大院卒
 張永燮 75년 文理大卒
 洪錫肇 75년 法大卒
 李俊雄 75년 行大院卒
 鄭忠始 76년 工大卒
 金義澈 76년 農大卒
 林翼根 76년 藥大卒
 朴聖姬 77년 家政大卒
 李載哲 77년 法大卒
 梁聖範 81년 醫大卒
 金時漢 84년 農大卒
 徐教一 84년 醫大卒
 金文洙 94년 經營大卒
 尹泳煥 6기 최고경영자과정
 趙乃璧 31기 최고경영자과정
 崔英主 37기 최고경영자과정
 元鍾甲 21기 최고산업전략과정
 李昌範 22기 최고산업전략과정
 盧喜燦 33기 국가정책과정
 鄭二朝 48기 국가정책과정
 40동기회
 차대38동기회
 공대 기계24동기회
 (20만원)

蔡始珠 56년 藥大卒
 曹圭香 64년 法大卒
 宋孝淳 67년 經大院卒
 朴相喆 69년 工大卒
 徐平雄 69년 師大卒
 鄭鎬瑛 70년 法大卒
 孫敏榮 71년 工大卒
 閔嘉鎮 74년 工大卒
 安秉均 74년 文理大卒
 俞炳泰 80년 工大卒
 吳鍾泰 38기 국가정책과정
 李珙雨 5기 보건의료정책과정
 공대 기계1동기회
 (10만원)

潘性執 55년 農大卒
 白喜英 69년 家政大入
 鄭鎮謹 4기 도시환경위생정책과정
 (5만원)

※미확인 동문: 1명



세계 치과의사연맹 尹興烈 차기 회장

“금연스티커 발행해 개도국 지원할 터”

지난 9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푸트라 세계무역센터에서 개최된 제89차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에서 尹興烈(65년 齒大卒·상아치과의원장)동문이 유효표 71표(68%)를 획득, 33표(32%)를 차지한 벨기에 마살 아덴 후보를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차기(2003년~2005년) 회장에 당선됐다. 이것은 우리 나라 최초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회장에 당선된 것이다.

—세계 치과계에 우리 나라의 자존심을 드높이셨는데, 소감은.

『FDI는 1900년 8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창설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문직 단체로 1백49개국, 75만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백여 년의 역사 동안 40명의 회장이 몸담았는데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선출됐습니다. FDI가 유럽과 미국인들만의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회장을 배출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각국의 치과의사 수에 GNP를 곱해서 나온 수치로 투표권을 배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미국과 유럽 쪽의 나라가 많은 표를 행사할 수 있었지요. 이런 와중에 제가 회장이 된 것은 국내 치과계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당선의 승리 요인은.

『우선 우리 나라의 신장된 국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지난 1997년 「금연 총회」로 발전시킨 FDI 서울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도 한국 치과의사에게 FDI 회장을 맡기게 한 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FDI는 어떤 일을 하는 기구인지.

『FDI는 매년 아시아·태평양지역, 남미지역, 북미지역, 유럽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5개 지역을 돌면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대개 1만여 명의 회원이 모여 개최식과 더불어 학술대회, 새로 개발된 치과기자재 전시회, 비즈니스 미팅, 개최국 관광 등의 행사에 참여합니다. 또 세계인의 구강위생에 관한 의견 교류 및 각국의 균일한 치의학 교육 및 계몽 활동 등 각종 정책개발을 통해 인류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에 따른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책임을 맡을 2년 동안은 가급적이면 많은 기금을 조성하여 개발도상국의 구강보건 사업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개도국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많은 개도국을 방문하여 정부 당국자에게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우리 나라에서 실시했던 여러 성공사례 등을 소개할 생각입니다.』

『또 FDI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금연스티커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금연을 통한 치아건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매년 5월 31일이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No Tobacco」 스티커를 판매해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개도국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국내 구강위생 수준은.

『제가 1990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맡고 있을 때 정부와 마찰이 많았습니다. 정부 정책 우선 순위에 구강위생이 빠져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정부에서도 많은 이해를 해주는 등 90년대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6·25전쟁 당시 미국의 치과의사들이 상당수 우리 나라에 왔습니다. 그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교육받은 교

재와 재료를 우리들에게 직접 소개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가지 않고도 벌써 1950년대에 미국의 선진 교육을 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인과 우리 나라 개원의들이 「38치과의사회」를 결성, 활동함으로써 국내 치의학 수준을 많이 향상시켰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생활해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그 동안 괴롭고 안타깝고 눈물겨운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 1983년 우리 나라에서 세계 총회를 유치하려고 FDI 본부와 접촉했을 때 총회 개최 신청서마저 주지 않았을 때가 가장 섭섭했습니다. 우리 나라에 컨벤션센터와 특급 호텔이 몇 개나 있는나고 묻더니 접수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 국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인지 1992년 베를린 총회에서 그 꿈이 이뤄져 1997년 서울총회 개최 승낙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때가 제일 기쁠 것입니다.』

—치과계 동문과 모교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 회장에 당선되면서 한 사람의 꿈은 단지 그 한 사람의 꿈으로 끝날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의 꿈은 꼭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구강 건강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치과 질환의 주된 원인은 입 안에 살



고 있는 박테리아입니다. 우리가 설당을 섭취하게 되면 박테리아가 플라그를 형성하기 때문에 설당을 좀 삼가고 철저하게 이를 잘 닦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구강 검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63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영화평론부문에 당선된 바 있는 尹동문은 모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노르웨이 오슬로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미국 뉴욕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경희대·고려대·단국대·순천향대 외래교수, 서울시 치과의사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FDI 제85차 서울총회 조직위원장, FDI 상임이사, 재무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 한미우호협회 월간 「미래의 세계」 편집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變)



모교 ROTC출신 첫 육군 대장 洪淳昊 2군사령관

“병영문화의 선진화와 전투력 극대화에 주력”

지난 10월 9일 단행된 대장급 군 수뇌부 인사에서 창군 이래 최초로 모교 ROTC출신 육군 대장이 탄생했다. 洪淳昊(66년 文理大卒) 2군사령관이 바로 그 화제의 주인공.

—모교 ROTC출신 1호 사단장, 1호 군 단장에 이어 1호 군사령관의 영예를 안게 됐는데...

『군의 최고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것은 제 생애 최고의 영광입니다만 저 자신의 개인적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36년 동안 저에게 많은 은혜와 기회를 베풀어주고 또한 앞으로 더욱 막중한 직책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준 대한민국과 군, 그리고 군의 최고통수권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철학과 재학시절 ROTC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잘 아시다시피 60년대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 여건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항학열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높았지요. 당시 학생들은 사법고시를 통해 사회적으로 출세하거나 의사가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는데, 사회적 지위상승을 위한 또 한 가지의 길이 육사를 졸업하여 장교로 임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군으로 진급하는 길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던 시기였지요. 군 복무문제가 저의 당면과제가 되었던 2학년 1학기 때 ROTC제도를 알게 되었고, 제가 경험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세계인 군 장교의 세계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ROTC지원을 군 의무복무의 한 가지 수단으로 접근했지만, 군 장교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장기 복무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소대장 시절 저에게 관심과 격려를

많이 보내주신 대대장이 계셨는데, 그분의 생활이나 부대 지휘 철학을 존경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부대를 지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대대장께서 저의 지휘 통솔력과 재능을 볼 때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것 못지 않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직업군인의 길을 권유했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단순 의무복무가 아닌 직업군인의 길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고, 「대대장님처럼 멋있게 부대를 지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과, 그 분과의 의리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장기복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에 있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때는.

『대대장과 사단장 시절 제가 세웠던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정보본부장 재직시 저의 판단이 적중하였을 때입니다. 또 장군으로 진급한 후 최초로 부임한 곳이 모교 학군단이었는데, 당시 모교 총장님께서 직접 포옹하면서 환대해주셨습니다. 그 때의 기쁨은 그 동안 제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을 잠시 잊고 생활해온 데 대한 반성의 시간이 되었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야겠다는 가르침을 얻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최근 군 장병들의 취미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진중 전시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은 내용과 질적으로 과거의 군대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장병들의 영내 취미활동 활성화입니다. 주둔지 단위별로 취미활동 동아리가 편성되어 일과 후 자유시간이나 휴일 등 가용시간을 이용하여 서예·그림·컴퓨터·VTR촬영·헬스·바둑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대 전체적으로는 명량한 병영생활 분위기가 조성되고 개인적으로는 정서순화와 취미활동 여건이 보장됨으로써 복무기간이 보다 유익하게 느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진 병영문화가 육성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진중창작품 전시회도 그림과 서예에 소질이나 취미가 있는 병사들이 동아리 활동시간을 이용해 창작한 작품들을 모아 전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오케스트라와 성악, 또는 대중음악을 부대 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제가 지휘하는 부대는 전술단위 부대가 아니라 작전술단위의 대부대입니다. 따라서 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결집·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수많은 간부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다양한 전투력 구성요소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무한한 잠재력과 동시에 특정의 제한점을 갖고 있는 의무복무 병사들을 어떻게 지휘 통솔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평시와 전시를 막론하여 이러한 제반 요소들을 어떻게 통합·운용하며 전투력을 극대화시킬 것인지에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의 안보·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향후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여, 이에 대비한 준비차원의 과제들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생각



입니다』

—ROTC 출신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현재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후배들은 자신에게 떳떳하고 군과 국가에 당당한 군인이 되기 위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함양하는데 더욱 노력함으로써, 군에서 인정받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간부로 성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항상 마음 속에 품고 생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洪동문은 학군사관후보생(ROTC) 4기 출신으로 특전사(소령)를 거쳐 모교 학군단장(준장), 육군본부 기획보안처장, 51사단장(소장), 국방정보본부 북한정보부장, 수도군단장(중장), 합참정보본부장 겸 국방정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變)



오레곤 지부

82년 창립, 매년 뜨거운 호응 속에 골프 모임

글: 朴昌成(76년 師大卒)회장

북으로는 워싱턴주, 동으로는 아이다호, 남으로는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주, 서로는 태평양에 접하고 있으며, 콜럼비아강을 경계삼아 미서북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오레곤은 1859년 31번째로 미합중국에 가입했다.

또한 오레곤 지역은 52개 주 가운데 아홉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땅의 52.3%가 연방정부 소유이다. 특히 다양한 지형과 수려한 경치를 자랑, 방대한 산림을 주요 자원으로 갖고 있어 농업지역으로 유명하지만, 1990년

대부터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지역을 오레곤(Oregon)이라 부르게 된 이유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과거에는 콜럼비아강을 허리케인이라 불렀으며, 이를 불어로 「Auragan」이라 하여 여기에서 오레곤이라는 지명이 유래했다고 한다. 또한 이 곳에서는 수중생활을 하며 댐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포유류 동물인 비버(Beaver)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 별칭으로 Beaver주라고도 한다.

오레곤 지부 동창회는 1982년 3월 李

殷相(56년 商大卒)·趙亨遠(59년 獸醫大卒)·崔東根(61년 文理大卒)등문이 의기투합해 그 해 4월 첫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1대 회장에 발기위원이었던 崔東根등문이 선출됐다. 현재까지 19대 회장단이 오레곤 지부를 진두 지휘하며 동창회를 이끌어오고 있다.

6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오레곤 지부는 1년에 두 차례의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가장 큰 행사인 골프대회는 매년 여름에 동문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개최되고 있으며, 연말에 열리는 정기총회 겸 송년회 모임에는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22일에 열린 골프대회에 鄭泰勳(72년 工大卒)전임회장이 1위를 차지, 金鎮國(73년 音大卒)등문이 메달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뜻깊은 동문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오레곤 지부 회원 대다수는 40~60대 동문들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가 지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며 한인회장을

맡는 등 한인지역 사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李洛順(49년 師大卒)등문은 45년전 이곳에 이민을 와서 오레곤 한인회의 산파역을 했으며, 초기 이민자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아 지금까지도 많은 교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朴昌成 회장

그 외에도 鄭聖國(77년 人文大卒)부회장과 가장 선배이신 金相萬(49년 音大卒)·陳炳基(51년 工大卒)등문, 가장 젊은 후배인 禹永倬(89년 自然大卒)등문이 동창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회장을 맡게 된 朴昌成(76년 師大卒)등문은 1986년부터 이곳 오레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5년간 美창조과학연구소에서 한인으로서 최초로 지질학과 과학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좀 더 친근한 동창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레곤 지부 동창회는 연말 송년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다.



2000년 송년회에서.



언어학과 동창회

7백여 동문, 언론·예술·경제 등 각계에서 맹활약

글: 南承昊(83년 人文大卒·모교 교수)등문



趙景錫 회장

1946년 모교 경성대학 법문학부에 한국 최초의 언어학과가 설치된 이래로 언어학과는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

(1946년 8월 22일)에 의거해 문리과대학에 귀속되었고, 다시 1975년 「서울대 종합학 10개년 계획」에 따라 인문대학에 소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까지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해 약 7백여 명의 동문 졸업생들을 배출한 언어학과 동창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도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0년대에 발족되었다.

최근까지 동창회를 진두지휘하며 버팀

목 역할을 해온 동창회장으로는 孫東燮(54년 文理大卒)등문, 朴泰煥(58년 文理大卒)등문, 全泳杓(60년 文理大卒)등문, 金光植(62년 文理大卒)등문, 李傑三(66년 文理大卒)등문 등이 있으며, 올해 3월 정기총회에서 趙長鎬(65년 文理大卒·한라대 대학원장)수석부회장이 신임 회장에 선출돼 열정적으로 동창회를 이끌어오고 있다.

언어학과 동창회는 현재 60년대 학번

동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50년대에 졸업하신 많은 선배동문들이 지속적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70~80년대 청·장년 학번 동문들 역시 젊은 감각으로 매 행사 때마다 뜨거운 열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창회는 학과 발전 및 후학 양성을 위해서도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고 있다.

한편 정기 행사로는 매년 초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총회 때마다 회장단을 새로 구성함으로써 각계 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해 동창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스승의 날에 모교 은사님들을 모시고 사은회를 열고 있으며, 가을 가을 경에는 관악산 등반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98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동창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은회 겸 운영위원회를 성황리에 개최, 언어학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모교 명예교수이자 지난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된 許雄(68년 大學院卒)등문과 역시 모교 명예교수이신 金芳漢(52년 文理大卒)등문 등을 초청해 뜻깊은 선배배간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사회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동문들의 직업 또한 학계는 물론 예술계, 언론계, 경제계, 금융계, 관계, 정계 등 그야말로

로 전 영역을 망라하고 있어, 모임을 가질 때마다 화제도 다양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의를 돈독히 해오고 있다.



2001년 3월 정기총회.

내 가야금 연주자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 외에도 재단법인 양영회 이사장을 역임한 李斗鍾(51년 文理大卒)등문, 孫東燮·朴泰煥 전임회장 등이 실업계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으며, 지금까지도 수많은 동문들이 정관계, 언론계, 교육계, 경제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끝으로 오랜 역사 속에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언어학과 동창회는 앞으로 동문들의 뜨거운 마음이 선배배들의 세대적 차이를 뛰어 넘는 모임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변화의 시도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박동문

82세 고령으로 킬리만자로 정상 등반

“다음엔 남아메리카 최고봉에 도전할 터”



지난 9월 15일 킬리만자로 정상 5,895m에는 또 하나의 세계기록이 생겼다.

킬리만자로의 정상에 등반한 최고령은 이제까지 80세가 세계기록이었다. 하지만 그 기록이 우리 한국인에 의해 깨졌다. 82세의 고령으로 킬리만자로에 등반한 한국인이 그 기록을 깬 것이다. 더욱 놀랄 만한 것은 산소가 부족한 고지대를 무산소 등정한 것이다.

그는 이미 95년 76세의 나이에 히말라야 메라피크봉 6,654m를 무산소 등반해 기네스북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바로 이 화제의 주인공은 박동문(41년 京城鐵山專門卒)동문.

모교 공대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로회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고문을 맡고 있는 박동문은 그의 나이가 의심스러운 정도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참선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구자이다.

95년 히말라야 메라피크봉 올라

박동문은 항상 일등을 좋아했다. 일제시대 때, 아버지가 독립운동가라는 이유로 공립학교는 못들어 간 그는 서당을 나와 검정고시로 중학교에 입학해 5년 동안 거의 일등을 한 장학생이었다. 또한 전국고등학교경연대회에서 3년간 일등을 한 수재였다. 초등학교 교사를 하겠다는 포부로 사범학교 입시시험을 치르려던 그가 경성광산전문에 시험을 보아 합격해 1등으로 졸업했다.

이후 그는 모교에서 교수직을 맡게 되었는데, 학생들에게는 특이한 교수님으로 낙인되었다. 시험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시험 때 그는 모든 학생들에게 있는 교과서, 참고서는 다 보라고 말한다. 그 짧은 시간에 아무리 어떤 교재를 보더라도 공부한 학생과 안한 학생과는 구별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모교 공대에서 학생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등산반 학생들에게서 지도교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 그가 산을 오르게 된 계기이다.

그의 첫 히말라야 등정은 대한산악회에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5,550m에 오르겠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한 것이다. 산악회의 등산 전문가들이 4,500m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오되었을 때 그는 혼자서 성공했고, 이를 계기로 1,000m를 더 오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95년도 76세의 나이에 히말라야 메라피크봉에 오르게 되었다. 같이 간 산악전문가 수십 명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그 혼자였다. 산사태와 추위와의 싸움이었다. 많은 죽을 고비가 엄습해왔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내려갈 수 없는 상황

이 그를 정상으로 몰고 갔다. 몇 천만금을 준다고 다시는 산에 오르지 않겠다는 다짐에 신고 있던 등산화까지 세르파에게 주고 왔다.

그러나 그의 도전은 멈출 수가 없었다. 킬리만자로 등정에 다시 도전을 결심한 해가 99년, 당시 그의 나이 80세, 이미 같은 나이의 최고 기록이 있어 그는 몇 년을 더 기다려 82세의 나이에 킬리만자로에 오르게 되었다.

박동문은 자신을 이렇게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생활참선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내가 하는 참선은 불교에서 하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무념무상 상태를 유지하며, 호흡을 적게 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 무념무상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정신을 맑게 하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알파파를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래 그의 건강은 좋지 못했다. 집안 내력인 고혈압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비만으로 힘겨운 생활을 했다. 또한 끊지 못하는 술은 그의 몸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런 그가 생활참선을 알게 된 것은 일본 유학시절이었다. 모교 교수로서 재직 중 박사학위 보유자들이 거의 없다는 비판에 그는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세우고 일본으로 갔다. 하지만 세계의 다양한 책들을 접한 일본학생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에 부끄러워 더 많은 노력을 했으나 나이라는 벽을 넘지는 못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이 참선이라는 것을 듣고, 이를 배웠다. 이후 일본인 젊은이들이 논문 한편 낼 때 그는 논문 두 세 편 내면서 스스로도 놀랐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비만, 술에 시달렸던 박동문이 건강을 되찾



으면서 참선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한번 오르면 5년은 젊어집니다

그가 참선을 한다고 알려졌을 때, 어려움도 있었다.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이었다. 대학 교수까지 지낸 사람이 그런 것을 한다고 심지어는 친구까지 그를 비난했다. 얼마 전 그 친구는 『내가 하는 일이 뭘았구나』라고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박동문은 10년전 『생활참선 건강법』이라는 저서를 발간했으며, 이번에 미국에서 번역본이 나온다. 책의 반응에 따라 20개 국어로 번역해 나올 것이며, 전 세계로 참선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산은 매 5년마다 오를 계획이라고 한다. 먼저 남아메리카에서 제일 높은 봉을 도전할 계획이다. 그 다음 93세, 98세, 103세...

『7천 이상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5천부터 7천 사이의 봉을 올라갈 겁니다. 한번 오르면 5년은 젊어집니다.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다들 그런 맛에 산에 오르니까요』 (亨)

商大人을 主賓으로

定期總會 및 商大人 送年の 밤
(제1회 올해의 교수상 발표 및 1억원 시상)

내가 商大人이면 그대도 商大人!



1. 2001년 12월 4일(火) 午後 6시부터
2. 남산입구 서울힐튼호텔 1층 컨벤션센터
3. Dinner Party 형식
4. 각기별 Group 좌석 배치
5. 특별선물이 동문을 기다립니다.

뽀빠이 李相龍 사회로 진행.

❖ 회비는 ₩30,000 티켓제로 각 기별 간사에게 문의 ❖

모여서 “뽀치자·뽀자·뽀내자”

서울 商科大學總同窓會
大學校



⑥4 (주)나모 인터랙티브

홈페이지 제작 및 검색엔진 서비스 제공

「웹에디터」·「딥서치」 25개국에서 애용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되도록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통신 수단이 없던 시절에는 아마도 두 발로 하루종일 온 동네를 돌아다녔을 것이며, 그렇게 돌아다녀도 별 소득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 우리 현대인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시간과 지역을 막론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어디 사람뿐이겠는가. 전 세계 나라들의 모든 주요 기관 및 회사, 학교를 포함해 2~3명만 있는 소모임이라도 인터넷을 두드리기만 하면 바로바로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개성시대인 요즘, 자신을 소개하고 알리고 싶은 네티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못지 않게 예쁘게 꾸미는 풍토가 이미 정착되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사람이라도 집을 짓고 간판을 내거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별히 건축 감각이나 미적 감각이 없는 한, 덩그러니 화면 하나로 자신의 집을 완성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제반 사항들을 완벽히 제공해주는 웹 저작용 소프트웨어 「나모 웹에디터」가 순수 국내 기술로 지난 1997년 (주)나모 인터랙티브(사장 **崔準秀**·85년 自然大卒)에 의해 탄생되었다.

현재 「나모 웹에디터 5」 버전까지 출시한 나모 인터랙티브(www.namo.co.kr 이하 나모)는 홈페이지 저작 도구뿐만 아니라 인터넷 정보 검색 엔진 「나모 딥서치」, 인트라넷 또는 웹 기반 프로그램 안에서 「나모 웹에디터」와 같이 HTML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업용 솔루션 「나모 웹에디터 Control」 등을 내놓

은 인터넷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부 장관 및 대통령으로부터 신소프트웨어 대상, 제1회 우수정보통신기업 디지털 대상, 장영실상 등을 수상한 「나모 웹에디터」 시리즈는 국내 홈페이지 제작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며, 북미, 일본, 유럽, 호주, 중국 등 세계 25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디자인부터 사이트 관리까지 고품격 웹사이트를 완성해준다는 평을 받고 있는 최신 버전 「나모 웹에디터 5」는 최적의 편집 환경으로 빠른 작업(Advanced Creating)을 가능케 하며, 지능적으로 사이트를 구축해주고 다량의 콘텐츠를 유지(Convenient Managing), 네티즌들의 까다롭고 다양한 입맛에 맞게 세련된 웹 디자인 요소를 강력하게 지원(Cool Design)하는 등 홈페이지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모든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개인 및 비즈니스 홈페이지까지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초급자뿐만 아니라 한층 더 고품격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중급 사용자들의 요구사항들도 빠뜨림 없이 삽입했다. 한국어, 미국영어, 영국영어, 일본어, 중국어 본토판(간자체), 중국어 대만판(정자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판 등 총 9개 언어 버전을 내놓아 해외 진출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입한 「나모 웹에디터」는 작년 10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글로벌 웹 매체 CNET의 벤치



崔準秀 사장

마킹에서 MS, 마이크로미디어, 어도비 등의 세계 유수의 기업 제품을 제치고 1위를 차지, 그 명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한편 나모의 또 하나의 야심작은 현재 버전 4까지 나온 「나모 딥서치」로, 이는 최근 「나모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를 성공리에 개최, 전 세계 11개 파트너사(온라인 유통점 포함)를 중심으로 해외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 국내 최초의 패키지형 인터넷 정보 검색엔진이다. 한글 처리가 뛰어나며 자신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외부 사이트의 문서들에 이르기까지 빠르고 정확한 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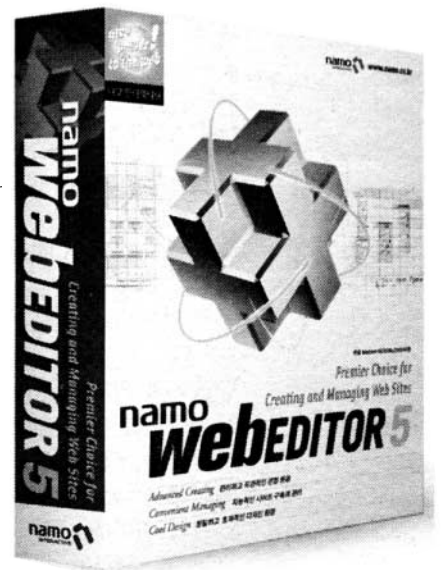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작년 10월 개최된 아셈 정상회의에서 공식 홈페이지 검색 솔루션으로 채택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한 「나모 딥서치 4」는 SOHO나 중소기업, 개인 사용자들도 부담 없이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자연어 검색과 문서포맷 검색뿐만 아니라 분류검색과 메타검색, 뉴스 클리핑 등의 강력한 기능을 추가했다.

나모의 제품들은 특히 스페인 PC Mania, 프랑스 PC No.1, 독일 Online Today 등으로부터 「위지윅 에디터 벤치마크 평가 1위」라는 칭찬과 함께 일본 DOS/V 매거진 및 일본 PC fan으로부터 「위지윅 에디터 평점 만점 획득」이라는 고가의 점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나모의 해외 수출 행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일본·유럽뿐만 아니라 스위스 PCShop, 베네룩스 3국 WebManagement, 스칸디나비아 ProSoft, 오세아니아 Sustance Pty, 싱가포르 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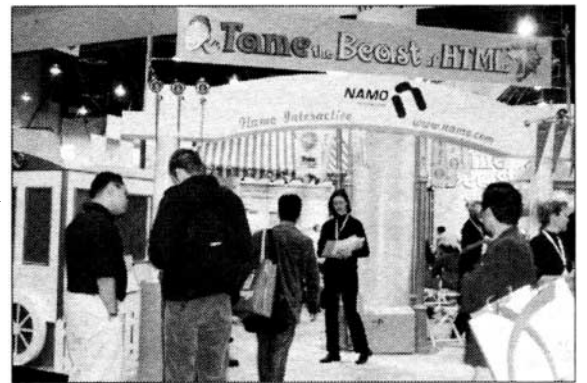
nyred.com, 중국 장성, 홍콩/대만 소프트차이나, 브라질 ZigZag 등 전 세계 곳곳에서 그 진가를 여실히 발휘하고 있다.

지난 7월 호주의 The Sydney Morning Herald 일간지에서 「나모의 제품들은 풍부한 템플릿과 클립아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자인 마법사는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빠르게 멋진 사이트를 제작하게 해준다. 사무용 차트를 만드는 도구는 최고급 사용자들에게 행복감을 맛보게까지 한다…」라는 표현까지 얻기도 했다.

나모를 이끌어오고 있는 **崔準秀**사장 및 **卓演相**(81년 工大卒)부사장, **金炯執**(90년 工大卒)개발이사 등은 앞으로, 국내 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하여 메이저급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나모를 등극시킬 예정이다. (表)



나모 웹에디터5.



Las Vegas 컨벤스 2000에 참가.



(주)듀크 에프디 李成海회장

부인·아들·조카 내외 등 6명이 동문

“易地思之와 自強不息을 생활신조로 하지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 어느 정도의 이슈거리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예전만 해도 농가에서 태어나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하는 것은 집안뿐이 아닌 온 동네의 자랑거리이자 매우 큰 경사였다. 당시 플랜카드를 동네 입구에 내걸 정도였으니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경상남도 진해의 농가에서 태어난 李成海(65년 文理大卒·DUKE Fusion Digital 회장)동문이 바로 앞서 언급한 케이스의 주인공이다.

모교 졸업 후 해군사관학교 정치학 교관으로 재직하기도 한 李동문은 이후 MBC 1기 기자로 입사, 12년간 사회부, 외신부, 정치부 등을 두루 거치며 언론인으로서 그 역량을 크게 키워나갔다.

또한 1981년부터는 체신부 공보관 및 전파관리국장,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 정보화기획실장 등의 주요 관직을 역임하며, 자신의 능력을 크게 인정받아 왔다.

이렇듯 승승장구해온 李동문이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모교에 입학했을 때와 장남 李昶潤군이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또한 차남 李昶旻(99년 社會大卒)동문이 자신과 같이 모교의 동문이 되었을 때라고 한다.

한편 학자의 꿈을 안고 당시 사람들이 잘 지원하지 않던 외교학과를 선택한 李동문은 그러나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길을 걷고자 공부하고 있는 주위 선배들을 보면서 자신의 꿈을 접어야만 했다.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고생을 감수해야 했으며, 집안에 보탬이 되어주어야 하는 입장이었던 李동문에게 그러한 것은 사치에 불과했다. 그 후 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고심 끝에 선택한 것이 바로 방송국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적성과는 맞지 않았던



李成海·李昶旻·羅美禮동문, 李昶潤군.

방송국의 생활에 다소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이곳에서 뜻밖의 행운을 잡게 됐다. 다름 아닌 지금의 반려자를 그렇게 회의를 느끼던 이곳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대학시절 연극부에서 직접 주연도 하고 연출을 맡으며, 각 대학신문의

표지를 장식한 이력을 지닌 부인 羅美禮(69년 文理大卒)동문을 방송국 내 서울대동문회 신입사원 환영식에서 처음 상면하게 된 李동문은 첫 눈에 자신의 평생 반려자로 羅동문을 선택한 것이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사내 커플도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풍토지만, 당시만 해도 남의 시선과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이산가족이 되어야 하는 시절이었다.

그렇게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李동문은 문득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와 언론사에서 평생을 보내야만 하는



姜知延·金國源·金信源동문.

가, 하는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부인도 다른 직장을 찾고 있던 터라 이때다 싶어 원래 꿈이었던 학자의 길을 걷기 위해 李동문은 유학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중 뜻밖에 정부로부터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공보활동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으며, 이것이 인연이 되어 李동문은 생각지도 않았던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이곳에서도 李동문은 자신만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 초 1백만 원을 호가하던 전화기를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화기 1백만대 설치 운동」을 펼치며, 정보화 사회의 구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한편 羅美禮동문은 美문화원에 입사, 당시 방송국에 근무하던 李동문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에서 일했다고 한다. 우리 나라 공휴일을 비롯해 미국의 공휴일까지 모두 쉬는데다 주5일 근무를 하며 당시 월급이 李동문의 2배였다고. 그 후 아이들이 자라면서 羅동문은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Korea Today」 편집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활동했으며, 지금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크게 활약하고 있다.

한편 앞으로 국제경제학을 전공해 경제관련 국제기구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차남 李昶旻동문은 모교 경제학부 재학시절, 달동네에서 야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남과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스스로 체득하는 등 학업과 인성을 함께 키워온 엘리트 주부의 칭찬이 자자한 인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카 金信源(86년 自然大卒·SK C&C 보안팀 과장)동문과 그의 동생 金國源(88년 工大卒·순천향대 교수)·姜知延(88년 家政大卒·Home Sewing 사업)동문 내외 모두 공학도로, 학자로, 사업가로 맹활약 중이다.

美스티븐스공대에서 1년여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초빙 연구원으로 잠시 자신의 꿈을 펼쳤던 李成海동문은 현재 젊은 이들로 구성된 인터넷 벤처기업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직접 창립하지 않았지만, 40년의 세월 동안 축적된 인생 경험을 토대로 이들에게 병풍 역할을 해주며,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대기업을 성장하는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끝으로 李동문은 「易地思之, 自強不息」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인간관계를 이끌어가고, 쉬지 않고 뭔가를 해나간다는 것, 이것이 자신의 조그마한 생활신조라며 「가족의 의미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一心同體로 제가 뭘 하든지, 사는 게 각자 달라도 항상 같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 생각하며, 두 아들과 함께 가족골프대회에 나가는 것이 하나의 꿈」이라고 자신만의 소박한 바람을 밝혔다. (表)

平生 한번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회비납부

동창회비는

- 후배들의 장학사업
- 동문 사회의 가교 역할을 위한 동창회보 발행
- 동문 결속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조직강화 사업
- 모교 재학생·교수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마음은 있지만 번거로운 연회비를 평생 한번 납부로 잊어버리세요.

	연회비	평생회비(일반회원 10배)
일반회비	20,000원	200,000원

- 동창회보(매월)·포켓용 다이어리(11월중)를 평생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동문 음악가의 기념 음반(CD)을 보내 드립니다.(11월중 발송)
- 동창회 관련 안내를 직접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 「조흥은행 397-03-002804」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계좌로 ON-LINE 입금하 시거나, 동창회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GIRO 통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입금후에는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안내는 02) 702-2233 총동창회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교소식

개교 제55주년 기념식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卞柱仙·安哲秀등문

李총장 “대학 재정·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보돼야”



모교 개교 제55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 16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본회 金在淳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모교 權彝赫전임총장, 李基俊총장, 李鉉求부총장 등을 비롯해 교직원,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李基俊총장은 기념사에서 『모교는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수교수를 유치하는

등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해 입학전형제도와 학사제도를 대폭 손질했으며, 대학원교육의 내실화에 힘쓰고 세계의 명문대학 및 우수연구기관들과 교류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재정의 자율성과 학생선발, 학사운영 및 교직원 인사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 金在淳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나라에 유명무명의 많은 대학이 있지만 천하의 준재들이 모여드는 곳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우리들의 모교』라고 말하고 『조국 앞에, 세계 앞에 책임을 지는 서울대인들이 큰 덕성을 보이면 은하수가 되어 찬란한 빛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기념사 및 축사 요지 참조>

이날 기념식에서는 사회대 사회학과 權泰煥교수 등 20명이 30년 근속 표창, 재무과 姜大一행정주사 등 1백8명이 20년 근속 표창, 관리과 魯根塾행정주사 등 55명이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이어 제11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세계걸스카우트 아태지역 卞柱仙의장, 안철수연구소 安哲秀대표이사 등을 선정, 증서와 기념패를 전달했다.

방안 중의 하나인 대학운영체제와 운영방식 개선분야에 대한 조언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의 자율화를 이뤄낼 수 있는 서울대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독립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선진 대학 시스템의 벤치마킹, 그리고 학사제도 및 입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이번 최고 자문단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0월 11일 경영대학 국제회의실에서 공개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교직원·학생 1백여 명이 참석해 해외 최고자문위원들에게 학교의 자율성, 입시제도, 학사과정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스미 시게히코 前도쿄대 총장은 『패널들이 가진 영·미식 사고는 한국의 풍토와는 많은 차이가 날 것』이라며 의견 조율에 힘쓰겠다고 말했고, 모교 朴堦錫기초실장은 본부 발전기획팀이 내놓은 안을 바탕으로 자문단이 내놓을 대안을 참고하여 내년 초 학교 발전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대학 최초로 세계 유수 석학들로 구성된 최고자문위원단이 모교가 세계 수준의 종합연구대학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變)

李基俊총장 개교기념사

<요지>



서울대학교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경쟁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SCI 논문게재 건수가 1997년에는 세계 1백26위였지만 2000년에는 세계 55위로 급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세계화, 한국학, 남북관계 등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2005년까지 세계 40위권에 드는 종합연구대학이 되고, 2010년까지 우리 대학의 약 50개 학문분야 중에서 적어도 30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세계 최초 혹은 우리만의 고유한 업적을 창출하여 선도하도록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는 특히 교수임용, 신입생 선발, 학사 교육, 대학원 교육 및 연구, 국내외 교류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문적 수월성을 견인해낼 우수교수를 유치하고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용심사 기준의 강화, 외국인 및 타고 출신 교수 임용의 확대, 교수의 개인별 연간 업적에 기초한 특별연구비 지원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학원 증원과 첨단기술 분야의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성별, 국적, 출신교 등을 가리지 않고 훌륭한 연구경쟁력을 갖춘 교수를 증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21세기의 지식기반 사회, 디지털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잠재력을 갖춘 신입생을 선발하고 훌륭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입학전형제도와 학사제도를 대폭적으로 손질했습니다. 전형제도에 있어서 모집단위를 광역화하고, 전형방식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학사과정 교육의 내실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갖고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여 개의 협동과정을 신설하여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과 사회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국내외의 우수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연구와 연구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대학원생 유치를 위해 석·박사 통합과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타고 출신자의 대학원 선발비율이 제고되었습니다. 상당수의 전공분야에서는 석·박사학위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하여 연구성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세계의 명문대학 및 우수한 연구기관들과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학점 상호인정, 공동학위 수여, 공동연구 수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외국인 교수와 함께 외국인 학생들을 선발하여 세계화된 캠퍼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과 이를 통한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인 걸림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재정의 자율성과 학생선발, 학사운영 및 교직원 인사의 자율성이 아직도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는 정부재정의 지원을 통해 재정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연구 및 교육활동의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만으로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게 되고 있고, 예산회계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중요 사업에 대한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적잖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의 자율성과 함께 서울대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신입생 선발 및 학사운영의 자율성과 교직원 인사의 자율성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부는 많은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대학으로 이양하여 자율성 제고에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학의 입학정원, 신입생 선발방식, 교직원 인사 등의 여러 부문에서 정부의 통제와 관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직원 인사의 자율성은 직원의 업무능력 배양과 적절한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해외 최고자문단 회의 개최

모교 발전위한 조언·의견 제시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문단 환영 만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종합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모교는 최근 해외 유수의 전·현직 대학 총장 및 학장들로 구성된 최고자문위원단(Blue Ribbon Panel)을 서울로 초청, 모교의 대학운영체제와 운영방식 개선 등 대학발전을 위하여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제시받았다.

지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계속된 제1차 회의를 통해 자문단은 모교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제반 이슈와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가진 뒤 오는 12월에 확정 발표될 서울대학교

발전에 대해 조언과 의견을 제시했다.

총 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은 의장을 맡은 헨리 로즈스키(前하버드대 문리대 학장)를 비롯해 마이클 코완(캘리포니아대 학술원 회장), 하스미 시게히코(前도쿄대 총장), 단 제이콥스(前노스웨스턴대 경영대학원장), 로드 옥스버러(前임페리얼 칼리지 총장), 휴고 소넨샤인(前시카고대 총장) 등 각국의 명망있는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이번 자문단의 핵심과제는 모교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혁

金在淳회장 개교기념 축사 <요지>

50여년 전, 개교하던 그 순간부터 모진 사상의 갈등과 정치적 풍랑, 혁명과 전쟁의 소용돌이를 겪었지만 우리 서울대의 창학정신, 「VERITAS LUX MEA-진리는 나의 빛」은 바래지 않고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우리 나라에 유명무명의 많은 대학이 있지만 천하의 준재들이 다투어 모여드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우리들의 모교입니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청춘을 같이 한 옛 친구 - 동창들은 소중한 인생의 재산입니다. 그 수 20만을 넘고 저마다의 실력으로 국가의 요추에서 없어서는 안될 인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지구촌 어디에 가나 동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개교 55주년을 맞이하는 축전에 즈음하여 모교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두 분을 선정한 것 -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卞柱仙동문은 세계 걸스카우트 아태지역 의장과 한국 아동단체협의회 회장으로서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오신 분이시요, 우리 총동창회의 부회장이기도 해서 기쁨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안哲秀박사는 Computer의 名醫로 이름을 내신 동문이지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국내의 Computer 환경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의 선두주자의 한 분이십니다.

卞柱仙동문! 안哲秀박사! 그리고 근속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교직원 여러분에게 나는 20만 동문과 더불어 경의를 표하며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모처럼의 개교 기념일만큼 은사를 기리며, 친구들을 찾는 것, 그것은 후진들의 특권이며 즐거움이라 하겠습니까. 아무쪼록 개교 기념일이 동문들 한분 한분에게 있어서 학창시절에 대한 추억과 더불어 모교에 대한 사랑이 더 한층 크고, 뜨거워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애하는 동문 여러분!

창학정신 - VERITAS LUX MEA는 우리들을 한데 묶어 줍니다. 조국 앞에, 세계 앞에, 책임을 지는 서울대인들 - 하나 하나의 별들은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서울대인이 하나가 되어 큰 덕성을 보이면 은하수가 되어 찬란한 빛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동창회의 Motto는 「모교의 발전이 조국의 발전」입니다. 모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서울대인들에게 영광있으라!



세계걸스카우트 아태지역 卞柱仙의장 청소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헌신



개발과 올바른 정신함양을 고취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 유치로 청소년들의 지도력 개발을 위하여 진력하고 있다.

1998년 세계걸스카우트 아태지역 의장으로 피선되면서 아시아지역의 청소년 지도력 개발을 위해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1년 아태지역 제1차, 2차 중국의 청소년과 아시아지역 청소년들의 실크로드 탐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중국문화 교류에 크게 기여했으며, 2001년 9월 제10회 아동과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전국학술대회를 개최, 전국의 지도자와 관련단체들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일에 공동으로

卞柱仙동문은 1964년 모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1965년부터 1971년까지 선린중학교에서 교사를 역임했다. 1988년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국제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卞동문은 1974년 한국걸스카우트 대외분과위원을 시작으로 1994년 제18대 한국걸스카우트 총재, 1998년부터 현재까지 세계걸스카우트 아태지역 의장으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미래의 기동인 청소년들의 잠재력

제후련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1999년 9월 서울 NGO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전 세계의 NGO대표들이 모인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1년 아태지역 제1차, 2차 중국의 청소년과 아시아지역 청소년들의 실크로드 탐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중국문화 교류에 크게 기여했으며, 2001년 9월 제10회 아동과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전국학술대회를 개최, 전국의 지도자와 관련단체들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일에 공동으로



연구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아태지역은 물론 국제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으로 청소년지도자 국무총리상, 국민훈장 동백장, 아태지역 청소년 지도자에게 수여하는 인도 대통령의 「Silver Elephant Award」상 등을 수상했으며, 청소년들을 위해 30여 년 동안 꾸준히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하여 그 공적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현재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본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卞동문은 수상소감을 통해 「국제적 지도자로서 길러진 오늘의 공은 한국 걸스카우트에서 30년 동안 소녀들과 젊은 여성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력의 결과」라며 「한국 걸스카우트에서 나타나지 않게 봉사하고 있는 2만여 명의 송고한 지도자들과 오늘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안철수연구소 안哲秀대표

정보통신 산업분야의 선구자 역할



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동안의 의학 연구업적을 접어두고 국내외의 컴퓨터 환경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1995년 (주)안철수연구소를 설립하여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의 창업자로 변신했다.

연구소 설립 후 미국 펜실베이니아

안哲秀동문은 1986년 모교 의대를 졸업하고 1991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원 박사과정 중인 1988년 뇌(c브레인)바이러스가 국내에 상륙했을 때 이를 퇴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백신(Vaccine)」을 개발하여 전국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무료 배포해 대규모 손실을 예방했으며, 이후 1995년까지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때마다 즉시 백신을 제작하여 무료 공급함으로써 컴퓨터 이용자들의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다.

법제제적인 전산환경의 다양화·고도화로 컴퓨터 바이러스의 피해도 대규모화됨에 따라 전문

대 와튼스쿨에서 기술경영학을 수학하여 경영자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정보통신 산업의 메카인 실리콘밸리의 우수 기업의 사례연구 등 생생한 현장학습을 통해 세계적으로 정보 보안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을 체감하여 설립 3년만인 1998년 「토틸 V3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을 완성했다.

1999년부터 PK1 기반의 PC 보안제품 「앤디(EnDe)시리즈」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인터넷 기반의 보안ASP(안티바이러스 서비스 ASP MyV3, 실시간 침입차단 서비스 MyFirewall 등)를 개발하여 정보보안 산업분야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등 정보



통신 산업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安동문은 1998년 8월에 국내 유수의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소프트웨어벤처협의회」를 결성하여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 고사 직전의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초석을 다졌다.

이같은 활동으로 정보문화기술상, 자랑스러운 신한국인상, 정보통신상 등을 수상했으며, 국내벤처 1세대로서, 컴퓨터 보안분야의 개척자로서, 투명경영의 실천자로서 그 공적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安동문은 수상소감을 통해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된 것에 커다란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경영과 공익적인 마인드를 통해 후배 벤처기업인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교 병원 개원 23주년 기념식



모교 병원(원장 차容眩)은 지난 10월 13일 오전 10시 A강당에서 내외 귀빈 및 교직원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23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차원장은 기념사에서 「1999년 비전 21 선포 이후 2년 9개월간 국민적 성원과 지지 속에 전 교직원이 한뜻으로 매진한

결과 외형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한 성과를 거뒀다」며 직원들에게 「환자 중심의 병원문화 정립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깨끗하고 밝고 부드러운 병원」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개원기념 행사에서는 근속직원 및 모범직원 표창이 있었다.

SNUA OPINION LEADER

지난 8월 13일 서울경제신문과 한국과학재단에서 수여하는 「이 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자로 한국과학기술원 劉龍교수가 선정됐다. 劉교수는 나노 백금촉매 등 극미세 물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다공성 실리카 물질」을 합성해 그 결정구조까지 규명, 국내 나노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돼 이 같은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에 劉교수로부터 나노기술을 통해 어떤 일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최근 마스크업이나 신문지상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자주 거론되는 분야를 꼽으라면 IT, BT, ET 그리고 NT이다. 여기서 NT는 nanotechnology의 약자로서 나노과학 기술을 일컫는다. 그럼 NT가 어떤 분야이기에 이처럼 각광받는 것일까?

「나노」란 원래 10억분의 1의 세계를 뜻하는 말로서 시간의 길이와 공간의 크기에 공히 적용되는 표현이지만, 현재 통상적으로 말하는 나노기술에서는 공간의 크기에 한정된다. 현재 반도체를 비롯한 미세소자의 제조기술 한계는 대략 직경 0.1 마이크로(1 마이크로는 1백만분의 1 m) 정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만약 이보다 1백분의 1 정도의 크기인 나노미터 크기의 소재를 다룰 수 있는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메모리 소자나 컴퓨터 칩 및 극미세 기계 부품을 만들 수 있다면 현재보다 기억용량과 연산속도가 훨씬 더 큰 컴퓨터와 생체 내부를 탐사할 수 있는 극미세 로봇의 개발 등 공학 분야에 엄청난 과학기술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생체 탐사로봇 개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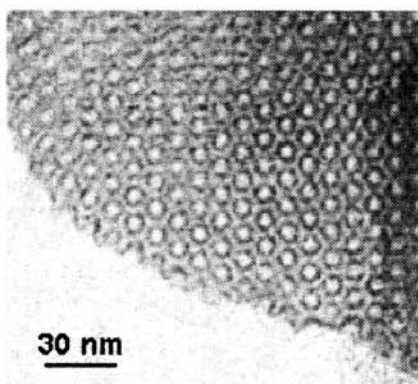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나노기술은 당장 눈앞에서 실현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기술이 아니다. 물질의 크기가 나노미터 수준으로 작아지면 물질 내부의 전자가 취할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같은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시적 크기의 물질에 비하여 색깔과 전기전도성, 촉매반응 활성 및 자기적 특성이 달라지거나 용융점이 낮아지는 등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 성질이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금속 철사를 나노 크기로 아주 가늘게 만들면 용융점이 낮아져서 조금만 가열해도 녹아 내리는 등 제조와 사용 시에 큰 문제점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반도체로 쓰이던 물질도 전기전도성이 크게 변하여 소자로 작동시킬 때 예기치 못했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나노물질은 거시 세계의 물질에 비하여 특이한 물리화학적 성질이 나타나므로 나노입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드뮴과 셀레늄으로 구성된 물질을 적절한 나노 크기로 만들면 푸른색에서 붉은 색까지의 무지개 색깔 중에서 원하는 색깔로 선택 제조할 수 있으므로 발광소자로 쓸 수 있다. 또한 금속입자를 나노 크기로 아주 작게 만들면 기존의 물질보다 화학

「나노」과학기술이 과학혁명 예고한다

반응을 훨씬 더 선택적으로 일으키거나 더 빠른 속도로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 물질을 제조할 수도 있다. 산화티타늄으로 나노입자를 제조하고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시키면 태양광선을 이용하여 물을 광분해해 수소와 산소를 값싸게 제조하는 광촉매 기술의 혁신을 이룩하는 날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제시한 몇 가지의 경우에서처럼 나노기술은 단지 더 작게 만든다는 극미세화의 개념보다 나노 크기의 물질을 합성하거나 조립하고 물리화학적 성질을 탐구하는 훨씬 더 광범위한 과학기술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공상과학소설에서처럼 우리 몸 속을 누비며 암세포 등과 싸울 수 있는 나노로봇, 미래형 나노 슈퍼컴퓨터 등이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한 세대 이상의 연구노력이 더 필요한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일단 성공하면 대단한 기술혁신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 그것보다 현재 실용화에 훨씬 더 가까운 나노과학 기술 분야는 아마도 전통적 기술에다 나노물질의 특이성을 접목하여 전통적 기술의 한계를 월등히 뛰어넘는 고성능 촉매와 자기저장매체, 센서, 의약품전달 나노캡슐 등을 개발하는 분야라고 생각된다. 현재 많은 화학자들이 분자나 원자를 여러 개씩 조합하여 나노 크기의 신물질을 개발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나노물질들 중에서 특이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발견될 수 있다. 본인의 연구실에서도 작년도에 네이처誌에 나노다공성 실리카 물질의 결정구조 연구에 관한 커버스토리 논문을 발표한 데 이어 탄소 나노파이프를 규칙적으로 배열시킨 새로운 탄소 나노물질(그림)을 합성하여 금년 7월 12일자 네이처誌에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기고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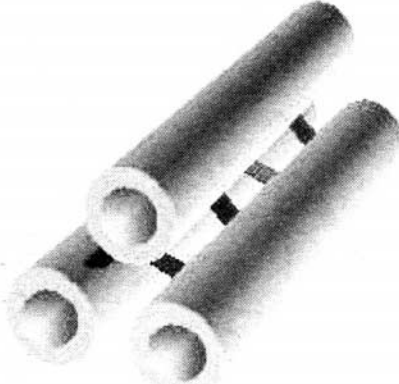
탄소 나노파이프의 전자현미경 사진(左)과 모형.

이 나노파이프 신물질은 지금까지 알려진 기존의 다공성 탄소에 비하여 아주 작은 백금 나노입자를 엄청나게 많이 넣을 수 있는 특성이 있어 고성능 화학반응 촉매로 활용하거나 이러한 백금-탄소 나노물질을 촉매로 이용하여 수소를 연료로 쓰는 고성능 연료전지의 개발 등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노기술은 극미세세계에 인간의 과학기술이 도전하는 것인데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나노물질 또는 나노소자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자와 분자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몇 개씩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조합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배열시키는 등의 조작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물질이 나노크기로 작아지면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나노입자들끼리 서로 결합하여 뭉쳐버리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들어 원자와 분자를 조합하여 글씨 모양으로 나타내는 등의 나노조작기술이 발표된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이러한 기술이 야말로 예술과 같은 수준의 나노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글씨를 몇 개 쓰는 정도의 기술로 실용화가 가능하다는 말은 할 수 없다. 이러한 나노글씨 또는 나노인쇄를 신속하면서도 무수히 복제할 수 있는 기술 없이는 실용화가 어렵다. 또 나노물질 제조기술이 개발된다 하여도 이러한 나노물질을 도선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나노물질 내부의 특정 부위로 전달해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나노기술은 분자나 나노소자에 전자를 하나씩 조작하여 작동하는 트랜지스터나 반도체, 컴퓨터 등을 개발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뇌의 작동원리처럼 학습에 의해서 분자나 나노소자를 자발적으로 동작시키는 신경망 컴퓨터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노 로봇이나 나노 슈퍼컴퓨터 등은 아직까지 실생활에서 실현하기까지가 상당히 먼 기술인 것 같다. 그러나 전통적 기술에다 나노물질의 특이성을 접목해 전통적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성능 촉매와 자기저장매체, 센서, 의약품전달 나노캡슐 등을 개발하는 분야는 10년 이내의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 미래의 사회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기술의 기반이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나노다공성 물질의 나노 공간 속에서 촉매 반응을 진행할 경우, 기존의



탄소 나노파이프의 전자현미경 사진(左)과 모형.

경우에 비해서 특정 생성물에 대한 선택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과와 함께 부산물을 생성시키지 않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환경오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경우, 1990년경부터 나노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노물질을 합성하고 물리화학적 성질을 탐구하는 연구가 본격화되어 왔다. 우리도 최근에 나노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10년간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해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나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갖가지 제도의 틀을 바꾼다고 한다. 선진국에 비하여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시의 적절한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물



劉 龍

- 1977년 모교 공대 공업화학과 졸업
- 1979년 한국과학기술원 졸업
- 美 스탠포드대 졸업 (박사학위)
- 美 U.C. 버클리대 졸업 (박사학위)
- 1985~1986년 美 U.C. 버클리대 연구원
- 대한화학회·한국화학공학회·한국공업화학회 종신회원
-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교수
- 기능성 나노물질 연구단 단장

론, 나노분야 중에서도 투자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과제들만을 선택해 중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분야를 선별하지 말고 나노학문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자들 중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을 나타내는 과학자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 줌으로써 미래의 나노과학 기술을 싹트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나노과학 기술은 현재 대부분이 발단단계에 있는 미래원천기술이기 때문이다.

우수 과학자 지원이 선행돼야

우리 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국내 나노기술 역시 다른 과학기술분야와 마찬가지로 기초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나노기술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에 이것저것 새로운 나노물질을 합성하거나 선진국에서 발표한 결과를 약간씩 변형 또는 답습하는데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새로운 기능을 발견하여 응용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게을리 할 수 없다. 이미 네이처誌와 같은 권위 있는 학술잡지에서도 단순히 새로운 나노물질을 합성하는 연구결과보다는 나노물질 특유의 새로운 기능을 발견하는 연구결과를 선호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새로운 기능을 발견해야만 앞으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나노소자나 장치의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는 새로운 나노입자, 나노선, 나노다공성 물질 등을 개발하고 이러한 물질들로부터 새로운 특성을 찾는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분야에는 국내에서도 화학, 화학공학, 재료과학 등의 분야에서 현재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관건은 새로운 나노물질의 합성과 새로운 제조기술 및 새로운 응용성을 개척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나노과학 기술의 최근의 발전현황과 전망에 대해 필자의 생각을 언급해 보았다. 나노과학 기술은 이제 막 탐색에 들어선 새로운 분야이다. 지금까지 과학의 발전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을 계속하여 넘어왔다. 나노과학 기술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과학혁명을 일으키리라 예견해본다.



돌맹이는 「돌+MEN」의 중복화

金河俊(77년 師大卒)해외개발(주) 대표



“

고인돌은

영어로 DOLMEN이고,

선돌은 MENHIR이다.

켈트어로

「돌」을 의미하는

「MEN」에서

유래한 것이다.

”

전 세계적으로 고인돌 또는 거석유적지의 분포를 보면, 영국의 스톤헨지, 프랑스의 브리타니 지역, 러시아의 카프카즈 지역, 인도 지역, 중국의 절강성 지역, 인도네시아 지역과 우리 나라, 특히 전라남도 지역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고인돌은 영어로 DOLMEN이고, 선돌은 MENHIR이다. 켈트어로 「돌」을 의미하는 「MEN」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말로 石(돌)을 돌맹이 또는 돌망, 돌막이라고도 한다. 지금은 사투리가 되었지만 한때는 한 지역의 대표어였다.

한 지역에 두 종족 또는 두 언어권이 충돌, 융합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가 같은 의미의 언어 중복화이며, 「가마술」, 「모찌떡」, 「임금·왕검」, 「남구·남기」 등의 예가 있으며, 특히 고대어 및 일본어에서 많이 발견된다. 임금의 「임」은 한자의 높임 말 「任」에서 유래한 것이며, 「금」은 우리 고대어로 왕 또는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검」에서 유래했다. 「왕검」도 마찬가지이다. 사투리로 나무를 「남구」 또는 「남기」라고도 하는데 고대어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이는 신라어 계통의 「나무」와 고구려 계통의 「기」의 중복화이다. 고구려어 「기」는 일본어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우리말에

도 작대기, 막대기 등에 흔적이 남아 있다. 현대에서도 중복언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완두콩, 매화꽃, 상가집, 칠월달, 역전앞 등이 그 예이다.

여기서 나는 돌맹이의 돌과 맹이는 「돌+MEN」의 중복화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유럽의 거석문화는 기원전 5천년, 인도 및 중국, 우리 나라 등은 기원전 2천~2천6백년 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혹, 영국에서 시작된 고인돌 문화가 프랑스, 독일, 시베리아 루트로, 또 하나는 영국에서 지중해 지역을 거쳐 인도,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중국의 절강성 지역 루트로 전파돼 온 것이 아닐까?

우연인지 우리 고대어로 마을을 뜻하는 「벌」과 유사한 발음의 도시명이 위의 지역 곳곳에서 발견된다. 영국의 리버 풀(pool), 프랑스의 파리(par), 보르도(bor), 브리타니(bur) 등 유럽 및 시베리아 지역 곳곳에서 발견되는 -버그, -브르크(-burg) 등의 지명에서 「bul」, 「bur」(벌)과 유사성을 추출해낼 수가 있다.

또한 이탈리아의 카불(bul), 인도의 칸푸르(pur), 나그푸르(pur), 자이푸르(pur), 말레이 반도의 싱가포르(pore), 쿠알라룸푸르(pure), 인도네시아의 플라

우 시프라(pul+pur), 우리 나라의 새벌, 서라벌, 서울, 신라 그리고 일본의 삿쵸로와 하라라는 지명이 그것이다. 하라는 벌에서 버라, 버라에서 하라로 변음한 것이고, 삿쵸로는 우리 고대어 새벌에서 유래했다고 추정된다. 新羅라는 국명도 새신(新)과 벌릴라(羅)를 사용한 새벌, 새로벌의 단순한 한자화이다.

전 세계적 언어를 살펴보면 신체어 및 호칭어의 기층 언어가 많은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에 위의 추정이 허황된 상상에 불과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충북 제원 황석리 고인돌에서 발견된 남자의 복원된 두형은 짱구머리에 코가 크고 광대뼈가 나왔으며 장두형이고, 신장이 커서 우리의 조상들의 일반적 체형과 많이 다르게 보인다. 현 서양인 또는 인도인에 가깝게 보여진다. 고대의 황석리인들이 「MEN」이란 언어와 함께 고인돌 문화를, 「벌」이라는 언어와 함께 도시 문화를 가지고 기원전 5천년 전에 영국을 출발, 한 그룹은 시베리아 루트로 또 한 그룹은 지중해, 인도양 루트로 우리 나라와 일본에 도달했던 종족의 후예 또는 그 일원이 아니었을까?

외식·급식은 21세기 꿈의 산업

權純子(81년 家政大卒)배재대 관광경영학부 교수



“

맛만을 추구하고

위생과 영양면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이 되고

말 것이다.

”

오늘은 무얼 먹을까 라는 고민은 도시락 문화가 아직 남아있던 때인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주로 가정주부들이나 하던 고민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사회가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 가정주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인이자 일주일에 몇 번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내가 몸담고 있는 외식·급식경영학 전공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대학에도 생겨난 것이다. 우리 전공은 관광경영학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1999년도에 개설되어 작년 2000년도에 첫 전공학생(3학년)이 진급한 신설 전공과목이다. 각 대학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공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전공이 신설된다는 것은 사회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외식 및 급식 분야가 급속도로 성장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기에 이르러, 이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가정 이외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는 더 이상 한 개인의 건강과 먹는 즐거움을 가정 내의 식사에만 의지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급식분야에서 그 동안 영양사들

은 힘든 환경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국민건강에 일조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식단이 면에서의 제약 때문에 먹는 즐거움까지는 만족할 정도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외식분야는 맛을 중시해 먹는 즐거움은 주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양면의 고려가 충분치 않아 비만아이를 양산하고 있다든지 외식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식 및 급식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음식을 다루는 분야이므로, 맛만을 추구하고 위생과 영양면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 보건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되며, 특히 예방 의학적 차원에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외식 및 급식에 관한 장기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나라 전통 음식이 관광자원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분야라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공이념 아래 우리 외식·급식경영학전공에서는 영양학·식품학·식품위생 등의 기초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그

위에 한식·양식·일식·중식·제과·제빵·와인 및 칵테일·발효음식·전통병과·디저트 상품화 등의 조리 관련 실무를 익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식급식 창업 및 마케팅 전략·외식급식 경영컨설팅·인사조직관리·원가관리 등의 다양한 경영 관련 과목을 공부하여 외식 및 급식분야의 전문경영인이 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배재대 21세기관 3층에는 외식·급식경영학 전공실습실인 조리실습실, 대량조리 실습실, 식음료 실습실과 같은 현대적인 시설이 있으며,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은 오늘도 열심히 꿈을 키우고 있다.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추구하는 바가 허기의 해소이든, 맛이든, 건강증진이든 간에 궁극적인 목표는 음식을 통해 행복하고 유쾌한 경험을 한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외식이나 급식산업은 그저 먹을 것을 파는 장사가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건강이라는 선물과 함께, 행복하고 유쾌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21세기 꿈의 산업이라고...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

겸손하게 자신을 평가하는 서울대인 돼야

金佑貞 : 金光明(64년 師大卒·춘천교대 교수)동문 장녀



우리 사회에서는 출신 대학이 여러 방면에서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성적이 어지간히 좋아야 들어갈 수 있는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름이 지니는 의미는 상당하다. 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고민해 보았다. 가족 2명을 포함한, 나와 친분이 있는 몇몇 서울대 출신들을 떠올려 보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사실과 그에 따라 받았던 대우에 익숙해진 채 자랐기 때문에, 학창 시절까지 난 서울대라는 이름의 중대한(?) 가치에 둔감한 편이었다. 대학을 가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나의 몇몇 서울대 친구들은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에 우월감을 갖기보다는, 내가 누리고 있는 대학 문화에 많은 부러움을 표시했다. 그 부러움은 서울대생에게 들었던 이러한 우스갯소리로 압축이 된다. 『Y대에서 축제를 하면 E대가 비고, E대에서 축제를 하면 Y대가 비고, 서울대에서 축제를 하면 서울대가 빈다』 서울대의 가치에 대해 본격적으로 실감하

게 된 건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였다.

위의 우스갯소리에도 나와 있지만, 서울대라는 이름에는 공부 잘 하지만 웬지 고리타분하고 즐길 줄 모르는 집단이라는 평가가 숨어 있다. 구성원들이 살아온 대부분의 시간을 학문과 자기절제에 투자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다. 그 룰 패닉 출신의 이적 씨나 개그맨 서경석 씨 등의 서울대 출신 연예인들은 이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느 정도는 이득을 보았을 것이다. 공부도 잘했으면서, 소위 판따라라 불리는 영역에서도 뛰어난 「팔방미인」이라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주목거리가 될 만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들에 대한 홍보에는 항상 「서울대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사실 공부와 영역이 다른 연예라는 필드에서도 서울대라는 이름 때문에 각광을 받는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감이 있다. 내가 느낀 또 하나는, 어느 분야에서나 서울대라는 타이틀은 그 자체로

주목 내지는 특별대우의 대상이 되는 마력이 있다는 것이다. 직장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 있는 어떤 사람이 서울대 출신으로 밝혀질 경우,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갖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아왔다.

이런 선입견은 물론 사실이기도 하다. 실제로 내가 보기에 그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서 최소한 중상위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대라는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상의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실한 자세를 이후의 삶에서도 계속 견지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지나친 선입견이 교육, 인사 등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어떤 면에서 그것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오히려 서울대인일 수도 있다. 그러한 사회적 인식이 낳기 쉬운 필요 이상의 우월감이나 자기비하, 안일함 등은 자신 및 주위 사람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서울대인들이 그러한 인식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생각의 유혹을 어느 정도는 경험했으리라 본다. 자신의 능력을 알지만, 결코 과소평가 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삶의 많은 영역에서 그 능력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알며,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히 배울 줄 아는 균형 잡힌 인식을 지닌 서울대인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지식과 학벌을 소유했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많은 서울대인들이 그러한 장점들을 더욱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쓰기를 바란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거창한 말을 들먹이고 싶진 않지만, 서울대 동문들은 자신들에게 많은 혜택과 관용을 베풀어 준 사회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을 다할 때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박 성 희
문화상책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자신의 한계나 사업의 장래를 미리 접치지 않는다. 자신감과 겸손함의 균형을 유지한다』

최근 내한한 미국 휴렛 팩커드(HP) 회장 칼리 피오리나가 「뉴욕 타임스」에 밝힌 성공 비결입니다. 발전의 최대 장애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계를 정하는 것이라는 지론이지요.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땐 굽힐 줄도 알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는 또 모든 경험은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며 중요한 건 실패한 경험에서도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MIT 졸업식 치사에선 「인생은 고비마다 결단을 내려야 하는 긴 여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0대 중반에, 그것도 여성으로 HP의 사령탑이 된 피오리나 회장은 1955년 생입니다. 우리 나라에선 흔히 팔자가 드세다는 말이지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태어나 스탠포드대에서 중세학과 철학을 전공한 뒤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한 학기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러곤 나중에 MIT에서 공학 석사, 메릴랜드대에서 MBA학위를 땀지요.

대학 졸업 후 처음부터 탄탄대로를 걸었던 것 같진 않습니다. 한때 이탈리아에서 영어강사를 하기도 했다가요. 80년 AT&T에 입사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84년 만성적자 부서에 들어가 몇 달 동안 영수증을 확인, 오랫동안 만연해 있던 부조리를 개선해 흑자 부서로 탈바꿈시키면서 역량을 인정받아 35세 때 네트워크 부문 최초의 여성임원이 됐고 이어 40세엔 북미 영업 담당 이사로 승진했지요.

그는 해보지도 않고 「NO」하는 사람을 경멸한다며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컴팩과의 합병을 발표했지요. 그러나 근래 그의 인기는 떨어지는 듯합니다. 얼마 전 HP 이사진이 1백% 지지, 중도하차의 위기를 벗어났지만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99년 7월 이후 HP 자산 총액은 1천7백억 달러나 줄었고 주가는 지난해 3월 최고가의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니까요. 특히 9월 초 컴팩과의 합병 발표 이후 주가는 28%나 더 하락했습니다. 그는 수시로 변하는 주가보다 수익구조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

많은 여성사업가중 피오리나가 유독 돋보이는 건 창업자가 아니고 조직 속에서 성장한 경우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피오리나 회장이 좋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매스컴이나 남성들이 피오리나를 거의 맹목적으로 존경 내지 사랑(?)하는 걸 볼 때면 한편으로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피오리나의 성공엔 AT&T 임원이던 지금의 남편 프랭크 피오리나의 도움이 상당히 작용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해낸 건 전적으로 피오리나 자신의 몫이었겠지만 초기에 그의 능력을 감지, 기회를 준 건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프랭크는 또 피오리나와 결혼한 뒤 전처 소생 자식을 전적으로 자신이 맡아 키움으로써 피오리나로 하여금 가사나 자녀교육에 상관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98년엔 아예 현직에서 은퇴, 피오리나를 뒷바라지하고 있지요.

피오리나 회장의 능력을 폄하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다만 여성의 능력을 알아채 뒤 그것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밀어주는 풍토가 부러울 뿐이지요.

피오리나 회장의 사진을 컴퓨터 초기 화면이나 화면보호기에 띄워놓은 기자들을 볼 때면 저는 부러움 반, 질투 반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출세한 남의 나라 여성에게만 관심을 갖지 말고 바로 옆에서 함께 일하는 여성에게 눈을 돌려 보라. 주위 여성동료의 실력을 파악하고 그에게 기회를 줘 제2·제3의 피오리나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물론 남녀 모두 피오리나 회장의 말처럼 스스로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자신감과 겸손함의 균형을 유지해 직접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되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 말아야겠지요.

칼리 피오리나의 어제와 오늘

96년 AT&T의 통신장비 부문을 「루슨트 테크놀로지스」로 분할하는 작업을 맡아 성공한 뒤 루슨트의 글로벌서비스 부문을 맡아 주가를 12배나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99년 7월, 연봉 9천만 달러에 HP의 최고경영자(CEO)로 영입됐습니다.

HP 역사상 처음이자 미국 30대 기업 첫 여성 CEO가 된 것이지요. 피오리나의 영입이 발표된 날 HP 주가는 2.68달러 뛰었고 루슨트 테크놀로지스는 1.87달러 떨어졌다고 하는데서 알 수 있듯 그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취임 이후 그는 HP가 필요로 하는 건 긴박감(urgency)과 속도(speed)라며 개혁의 칼을 들었습니다. 먼저 회사의 이미지를 통합하고 연구개발 조직을 혁신했는가 하면 임원회의 장소를 본부 건물에서 연구동으로 옮기고 83개 제품사업부를 12개로 줄였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구조를 인터넷 종합솔루션 쪽으로 바꾸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우 주가는 CEO의 거취를 결정하는 만큼 결코 만만치는 않겠지요.

매출 5백60억 달러, 14만5천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회사를 운영할 준비에 한창이지만 1만5천명을 해고해야 하는 데다가 두 회사의 겹치는 제품군을 처리해야 하는 등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합병 발표로 2년이라는 시간을 얻었지만 일이 잘못되면 DEC(디지털이큅먼트) 인수를 주도했다가 15개월만에 불명예 퇴진한 컴팩의 전 CEO 에크하르트 파이퍼의 전철을 밟게 될 지도 모른다고들 합니다.

피오리나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알려진 대로라면 굉장히 저돌적이고 자신만만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빠른 것은 늦는 것보다 좋고 당장은 나중보다 좋다』며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는 게 그렇습니다. 회계와 마케팅에 능하고 영업으로 성장했다는 것도 여성으로선 드문 경우임에 틀림없습니다.

의과대학

「자랑스런 서울의대인」 시상



朴容炫·沈英輔·金勇一·李惠媛·洪昌基·李희장·李鍾郁등문.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吉女)는 지난 10월 17일 모교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동창의 날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자랑스런 서울의대인」에 졸업40주년을 맞은 15동기회 金勇一(61년卒·가천의대 총장)·洪昌基(61년卒·서울중앙병원장)·李惠媛(61년卒·필라델피아 지부 동창회장)

등문이 선정돼 모교와 동창회로부터 기념패를 받았다. 이어 15동기회 沈英輔회장이 李鍾郁학장 및 李희장에게 모교 및 동창회발전기금을 각각 전달했다.

한편 이번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졸업 40주년을 맞는 동문들을 위해 기념 만찬회와 골프대회를 준비했으며, 국내외에서 참석한 1백여 명의 동문들은 3박4일에 걸쳐 오대산 및 동해안 일대를 관광했다.

사범대학

재학생 15명에게 장학금 전달



사범대학동창회(회장 李璣教)는 지난 9월 28일 모교 교수회의실에서 姜信鎬상임부회장, 尹正一교육학과동창회장, 吳洪哲지리교육과동창회장, 모교 曹昌燮학장, 禹漢鎔교무부학장, 崔勝諺학생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李희장은 재학생 15명에게 각각 1백만원 씩 총 1천5백만원의 장학금과 장학

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개최된 장학금 수여식은 그 동안 동창회관 재개발사업 등의 차질에 의해 5년간 장학금을 지급해오지 못하다 올해부터 다시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특히 동창회의 어려운 현실을 전해들은 많은 동문들이 모교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개인 및 학과동창회별로 찬조를 해오에 따라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약학대학

제20회 홈커밍데이 행사 가져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禮植)는 지난 10월 14일 모교 교수회관 잔디마당에서 4백여 명의 동문 및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졌다.

이날 李희장은 인사말에서 「20년이면 사람이 태어나서 성년으로 되는 전과정의 기간인데, 가장 많은 동문들이 모이는 행사에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가져준 동문 여러분

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모교 千文字학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교수가 아닌 평범한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껏 어울려 보고 싶다」고 말하며 「선·후배동문들과 함께 학창 시절의 젊은 열기로 돌아가 진심어린 대화를 나누자」고 피력했다.

이날 행사에서 특별히 동문들로 구성된 치어리더들이 열띤 응원을 펼치며 행사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으며,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참여하는 퀴즈퀴즈 게임, 사행시 짓기,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수의과대학

모교 방문행사 개최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佑幸)는 지난 10월 14일 모교 수원캠퍼스 합동강의실 및 잔디밭에서 鄭英彩장학재단 이사장, 모교 李興植학장 등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모교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장학재단 사업 보고에 이어 67동기회를 대표해 申光浩동문(사진右)이 鄭이사장에게 장학기금을 전했다.

또한 동창회는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는 수의과대학 건물 준공과 관련된 사업보고를 동문들에게 설명했다.

이어 처음 모교를 방문하는 동문 가족들을 위해 셔틀버스를 이용한 캠퍼스 투어를 실시했으며, 참석한 동문들은 야외에서 마련된 바비큐 파티와 함께 모교 동아리에서 준비한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물리학부

高允錫회장 선출



물리학부동창회(회장 李龍兌)는 지난 10월 13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동문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金斗哲(70년工大卒)물리학부장이 모교 현황에 대해 소개했으며, 동창회 盧泰元(82년 自然大卒)총무가 올해 추진 사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高允錫(모교 명예교수)동문(사진)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했다.

신임 高회장은 54년 모교 문리대를 졸업한 후 모교 문리대 조교수로 부임, 자연과학대학장, 자연과학종합연구소장, 부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물리학회, 기초과학연구활성화사업추진 본부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미술대학

연말까지 인터넷 미술전 열어



미술대학동창회(회장 李信子)는 지난 10월 6일 신사동 갤러리 우덕에서 정기총회 및 인터넷 미술전 개막식을 가졌다.

이날 전시회에서 194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졸업자 2백73명의 대표작들과 약력을 일목요연하게 해놓았으며,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초보자들도 클릭 몇 번으로 쉽게 사이트를 구경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전 동문들의 온라인 주소를 함께 수록, 연락하고 싶은 동문에게 e-mail로 곧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한편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속되는 인터넷 미술전(www.howart.com 또는 www.snuart.com)의 사이트는 동창회 전용 홈페이지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상과대학

동문 3백여 명 관악산 등반



상과대학동창회(회장 高炳佑)는 지난 10월 3일 모교 노천극장에서 동문 및 동문 가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등산대회는 등산 동호회 「十山會」 동문들과 특별히 모교 鄭基俊교수가 6차례에 걸쳐 관악산 코스를 현지답사, 온 가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등반할 수 있는 최적의 코스를 선택했다.

이날 행사에서 11명의 대가족을 거느리고 온 동문 및 부자지간이자 선후배 관계인 孫喜均(55년 商大卒)동문과 孫昌秀(90년 經營大卒)동문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으며, 韓英國·李升雨·裴茂基·尹永錫·曹甲周·洪性宙·朴英珠·朴容晟·沈 薰·李永瑞·林昌烈·李大榮·金正泰동문 등이 꾸민 상품과 경품을 협찬했다. (表)

모임예정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880-7631)

전자동문회

전자동문회(회장 李梓旭)는 오는 11월 30일 오후 7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887-5222)

경영대학원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禹德昶)는 오는 12월 12일 오후 6시 장충동 소피텔엠베서더호텔 4층 도라지홀에서 2001년도 송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702-3366)

진주시부

진주시부(회장 崔文錫)는 오는 11월 23일 오후 6시 30분 갑을가든에서 정기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055-751-5894)

교육학과

교육학과동창회(회장 尹正一)는 오는 11월 23일 오후 6시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생활관 컨벤션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간호대학

「모교 방문의 날」행사·야유회 개최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朴明子)는 지난 10월 16일 모교 두레문화관에서 졸업 30·40주년을 맞이하는 동문 주최로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은 모교 박물관, 중앙도서관 등을 견학했으며, 수정궁에서 모교 교수 및 동문간의 정담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교수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李恩玉학장에게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대학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또한 金奉寅(71년卒)동문이 「Indian Head Massage」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

는 金明淑(71년卒)·朴仁喜(71년卒)·徐泳淑(71년卒)동문이 각각 「Korean Liaison」, 「Role of case manager」, 「뉴욕의 방문간호사업」을 주제로 발표회를 가졌다.

한편 지난 10월 20일 6년만에 다시 모교 노전극장에서 동문 야유회를 개최, 1백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동창회 행사 중 최고의 참석률을 보였다. 오랜만에 청정한 가을하늘 아래서 이뤄진 이번 야유회에 참석자들은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 그동안 쌓인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는 하루를 보냈다.

기계동문회

신임 회장에 禹仁性동문 선출



기계동문회(회장 朴德七)는 지난 10월 14일 모교 공대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제35차 정기총회 겸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차회장은 인사말에서 「학계에 두루 포진하고 있는 기계 동문들이 국가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전통과 저력을 되살려 이 난국을 돌파하는 해법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후임 회장이 더욱 단합된 우리 동문회를 만들어 주시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林光洙공대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천년의 시대는 과거보다도 공학·과학·기술이 우리 삶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우리 서울대 공대 동문이야말로 참으로 자랑스럽다」라고 하며 「오늘은 동문들이 한데 어우러져 학창시절로 잠시나마 돌아가 우위를 다지고 모교발전에 이바지하는 다짐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동문회는 모교 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기증했으며, 학부 및 대학원생에게 장학금(백암·월산·불암산·장익용·최상홍장학금) 5백5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禹仁性(62년卒·인터비즈니스시스템 대표이사)동문을 선출했으며, 2002년 신년교례회를 1월 11일 개최하기로 했다.

체육교육과

「체육인의 밤」 행사

체육교육과동창회(회장 李康法)는 지난 10월 20일 모교 종합체육관에서 동문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방문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본행사에 앞서 동문 및 동문 가족은 학창시절로 돌아가 체육회장배 탁구대회, 골프대회 등 다양한 경기를 펼치며, 건재한 기량을 선보였다.



법대25회

졸업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법대25동기회(회장 鄭在昊)는 지난 10월 20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동문 및 동문 가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 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모교 캠퍼스

및 100주년 기념관을 둘러본 후 모교 은사인 朴秉濂·金哲洙(본회 논설위원)·黃迪仁·崔松和·金裕盛동문 등에게 사은품을 증정했으며, 모교 金東熙학장에게 1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이어 우정의 한마당 시간을

통해 친교 게임, 어울 노래마당 등을 선보이며 밤늦게까지 동문들은 자리를 뜰 줄 모르고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10월 4일 역삼동 소재 아세아빌딩 도원식당에서 재경부 金振杓차관, 2002 한·일 월드컵 조직위원회 文東厚위원장, 동양그룹 玄在賢 회장, 한나라당 姜在涉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순테니스회

교회조 全兢烈·高炳國동문 우승

耳順테니스회(회장 全兢烈)는 지난 10월 3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장에서 동문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마지막 제34회 정기대회를 개최했

다. 창립이후 매년 연 3회에 걸쳐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耳順테니스회는 이날 교회조와 이순 A·B조로 나누어 풀 리그전으로

시합을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교회조에 全兢烈(48년 工大卒)·高炳國(50년 文理大卒)동문과 이순A조에 李炳允(57년 齒大卒)동문·沈載錫(57년 商大卒), 이순 B조에 李存熙(63년 師大卒)·裴仁河(66년 文理大卒)동문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亨)

농공학과

정총서 공로·감사·축하패 전달



농공학과동창회(회장 趙範鎭)는 지난 10월 7일 모교 수원캠퍼스 8동 대강당 및 잔디밭에서 3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정기총회 겸 「농공의 날」 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총회에서 2001년도 1, 2학기 장학금 수혜자 22명에게 장학증서를 전했으며, 동창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전임

洪承晚회장, 池根鎭부회장, 趙成仁간사장 등에게 공로패를, 이날 행사를 위해 특별찬조를 한 金學奎·金允慶·宋士一·嚴大浩동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金顯峻동문 외 7명과 수자원개발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朴泰善·성세웅동문 등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금속공학과

금속의 날 행사

금속공학과동창회(회장 李東寧)는 지난 10월 14일 모교 노전극장에서 1백50여 명의 동문 및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금속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참석자들은 청백전 응원전, 0X게임, 골프퍼팅게임, 장기자랑 등의 흥겨운 시간을 보냈으며, 개인 및 기별로 찬조한 경품 및 찬조금으로 행운의 경품추첨 시간도 아울러 가졌다.

한편 행사에 앞서 가진 가족 테니스대회에서 吳承烈(73년卒)·金鉉二(81년卒)동문이 우승을, 姜春植(59년卒)·宣錫文(72년卒)동문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동 정

수 상

▲金敏洙(51년 文理大卒·고려대 명예교수)=지난 10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훈민정음 반포 555돌 한글날 기념식에서 세종문화상(문화부문)을 수상함.

▲權寧禹(51년 藝術大卒·한국화가)=지난 10월 20일 장충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받음.

▲趙完圭(52년 文理大卒·한국생물산업협회 이사장)=지난 10월 8일 일맥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4회 일맥문화대상(교육봉사상)을 수상함.

▲全相運(56년 文理大卒·문화재위원회 위원)=지난 10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훈민정음 반포 555돌 한글날 기념식에서 세종문화상(학술부문)을 수상함.

▲崔一男(57년 文理大卒·소설가)=지난 10월 20일 장충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받음.

▲金義卿(60년 文理大卒·극작가)=지난 10월 20일 장충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제33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연극무용부문)을 수상함.

▲李成茂(60년 文理大卒·국사편찬위원장)=지난 10월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사단법인 청운사가 수여하는 제4회 효령대상(문화부문)을 수상함.

▲金京熙(61년 文理大卒·지식산업사 사장)=지난 10월 26일 한국언론재단·프레스클럽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수여하는 제12회 간행물윤리상 대상을 수상함.

▲韓基昊(61년 文理大卒·운송신문 발행인)=지난 10월 24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보관문화훈장을 받음.

▲禹完植(61년 商大卒·한국종합에너지 부회장)=지난 10월 19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한국전문경영인학회에서 수여하는 제4회 한국전문경영인대상(제조업부문)을 수상함.

▲金宗學(62년 美大卒·前강원대 교수)=지난 11월 5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시가 수여하는 제2회 이인성미술상을 수상함.

▲洪元卓(62년 商大卒·모교 경제학부 교수)=지난 10월 12일 한국경제신문에서 수여하는 제20회 다산경제학상을 수상함.

▲李源洋(63년 文理大卒·한양대 교수)=지난 10월 16일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한·독 학술교류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독일연방공화국 1등 십자공로훈장을 받음.

▲林繁藏(64년 師大卒·모교 체육교육과 교수)=지난 10월 15일 문화관광부 5층 회의실에서 제39회 대한민국 체육상(연구

부문)을 수상함.

▲魏聖復(64년 商大卒·조흥은행 장)=지난 10월 19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한국전문경영인학회에서 수여하는 제4회 한국전문경영인대상(금융부문)을 수상함.

▲李成千(65년 音大卒·前모교 교수)=지난 10월 20일 장충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보관문화훈장을 받음.

▲申應培(65년 大學院卒·한양대 교수)=지난 11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4회 교보환경문화상 연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함.

▲安輝濤(67년 文理大卒·모교 고교미술사학과 교수)=지난 10월 26일 한국언론재단·프레스클럽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수여하는 제12회 간행물윤리상(저작부문)을 수상함. 또 韋巖 張志淵선생 기념사업회로부터 제12회 「위암 장지연상(한국학부문)」을 받음.

▲朴容眩(68년 醫大卒·모교 병원 장)=지난 10월 19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한국전문경영인학회에서 수여하는 제4회 한국전문경영인대상(의료·제약부문)을 수상함.

▲曹鍾守(70년 農大卒·모교 농생명공학부 교수)=지난 10월 12일 순천대에서 열린 제51회 한국고분자학회 추계총회에서 「자기집합된 고분자계의 구축과 의용재료에의 응용」의 업적으로 상암고분자상을 수상함.

▲金正泰(70년 商大卒·주택은행 장)=지난 10월 21일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로부터 올해의 자랑스러운 일고인상을 수상함.

▲姜龍洙(76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촉진수송분리막연구단장)=지난 10월 18일 서울경제신문과 한국과학재단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제55회 「이달의 과학기술상」을 수상함.

▲黃禹錫(77년 獸醫大卒·모교 수의학과 교수)=지난 10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훈민정음 반포 555돌 한글

날 기념식에서 세종문화상(과학기술부문)을 수상함.

서울大 人名錄 발간에 부쳐

「회원명부」란 이름으로 서울大의 명부가 발간·배포된지도 어언 11년이 흘렀습니다.

그간 새로이 배출된 회원은 물론, 회원 각자의 인적사항에 많은 변동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지식정보산업시대의 핵심은 인적자본 즉 Human Capital이며, 또 이의 개발전략은 Networking에 있다고 볼 때, 서울大 출신의 Human Resource를 확인·정리하고 Sorting하는 일만해도 모교는 물론, 나라의 경쟁력 제고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총동창회에서는 인명록 편집실을 개설·운영하면서 모교와 협력하여 Raw Data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또 T.M.도 곧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디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수집된 인적정보는 인명록 발간 이외의 용도에 는 쓰여지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할 것임을 점언합니다.

날 기념식에서 세종문화상(과학기술부문)을 수상함.

▲朱南哲(77년 大學院卒·고려대 교수)=지난 10월 20일 장충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육관문화훈장을 받음.

▲文國現(77년 經大院卒·유한김벌리 사장)=지난 10월 20일 고려대 경영관에서 한국생산성 학회가 주관한 제8회

생산성 경영자대상을 수상함.

▲徐判吉(80년 獸醫大卒·포항공대 교수)=지난 10월 25일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수여하는 2001년 학술대상 「동헌상」을 수상함.

▲文愛理(83년 藥大卒·덕성여대 교수)=지난 9월 8일 서울리츠칼튼호텔에서 동성제약(주)이 국내 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약업인에게 수여하는 「李善珪 약학상」을 수상함.

▲李在榮(86년 人文大卒·베를린 자유대학 박사과정)=오는 11월 30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창작과비평사가 수여하는 제8회 창비 신인평론상을 수상한다.

▲金範(86년 美大卒·모교 강사)=지난 10월 29일 갤러리현대에서 프랑스의 패션기업인 에르메스가 주관한 제2회 「에르메스코리아 미술상」을 수상함.

▲孫基植(00년 音大卒·성악가)=지난 9월 22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제7회 국제 성악콩쿠르에서 27개국 참가자들과 경합을 벌여 1위와 특별상을 수상함. 법원행정처 孫基植(72년 法大卒)사법정책연구실장이 부친임.

▲金勝猷(19기 AMP·하나은행 장)=지난 10월 15일 중앙일보 구사옥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6회 월간미술대상 시상식에서 특별부문 대상을 수상함.

▲柳寅鶴(38기 AMP·한국조폐공사 사장)=지난 10월 6일 소총·사선문화제전위원회가 수여하는 제10회 昭忠·四仙文化賞(특별상)을 수상함.

▲元大淵(44기 AMP·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지난 10월 23일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디자인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디자인 경영자상을 받음.

이동·선임

▲徐廷旭(57년 工大卒·前과학기술부 장관)=지난 10월 16일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KAB) 임시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출됨.

▲李龍兌(57년 文理大卒·삼보컴퓨터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9월 26일 기업정보화 관련 연구·조사 전문기관인 기업정보화지원센터 제4차 이사회에서 이사장에 선임됨.

▲李洪九(53년 法大入·前국무총리)=지난 10월 25일 대한적십자사 명예고문에 위촉됨.

▲金允植(59년 師大卒·前모교 교수)=지난 9월 28일 명지대 국어국문학과 석좌교수로 임용돼 비평 분야를 강의함.

▲李英浩(60년 師大卒·명지대 객원교수)=지난 10월 24일 해병학교 총동창회 발기인 대표에 선임됨.

「에반젤 코러스」任昌培단장

전국합창대회서 대통령상 수상

지난 9월 22일 대전엑스포 아트홀에서 열린 제6회 대통령배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任昌培(80년 音大卒·여주대 겸임교수)등문(사진)이 지휘한 에반젤 코러스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任동문은 한국음악협회 이천시 지부장, 에반젤 코러스(서울대표) 단장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두부사려(창작곡), 상투스(미사곡) 등 2곡을 연주해 상금 1천만원과 상패를 받았다.

任동문은 두 달전 제주도에 열린 탐라 전국합창대회에 이전콘서트콰이어 회원들과

함께 참가, 대상인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으로 인해 任동문은 오는 11월 16일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열리는 국민 대음악회에 출연, 뉴서울필오케스트라와 전국각지에서 모인 2002명의 합창단을 지휘하게 된다.





▲崔圭完(61년 醫大卒·삼성의료원장)=지난 10월 21일 열린 대한내과학회 정기평의원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임됨.



▲金京愛(61년 齒大卒·김경애치과의원장)=지난 10월 23일 열린 부산여자고등학교 재경동창회 제28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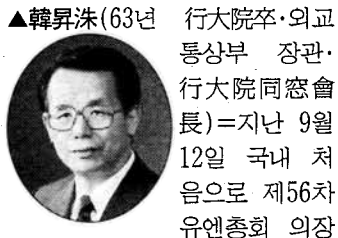
▲黃光雄(63년 工大卒·건화엔지니어링 회장)=최근 열린 아시아·대양주 도로기술협회(RF-AAA) 이사회에서 이사 겸 한국지회장에 선출됨.



▲金道彦(63년 法大卒·前검찰총장)=지난 10월 9일 법무법인 청률 고문 변호사에 위촉됨.

▲崔信錫(63년 法大卒·변호사)=지난 10월 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됨.

▲金學泉(63년 師大卒·건국대교수)=지난 10월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선임됨.



▲韓昇洙(63년 行大院卒·외교통상부 장관·行大院同窓會長)=지난 9월 12일 국내 처음으로 제56차 유엔총회 의장에 선출됨.



▲許勝一(64년 文理大卒·모교역사교육과 교수)=최근 충남대에서 열린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金耕宇(64년 法大卒·前평화은행장)=최근 전자경비시스템 분야 벤처기업인 시큐어넷 상임 고문에 선임됨.

▲金恒經(64년 法大卒·駐뉴욕총영사)=지난 10월 13일 외교안보연구원장에 임명됨.

▲朴俊緒(64년 法大卒·연세대교수)=최근 열린 한국기독교교회 제17차 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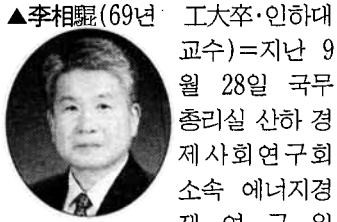
▲鄭英一(64년 商大卒·모교경제학부 교수)=지난 10월 18일 농림부 양곡유통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됨.

▲金德亨(66년 法大卒·前조선일보 논설위원)=최근 창간한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편집고문에 취임함.

▲沈在淪(66년 法大卒·前대구고검장)=지난 10월 17일 부산고검장에 임명됨.

▲鄭泰基(66년 法大卒·前GT월드코리아 사장)=지난 10월 4일 교보정보통신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趙源一(68년 法大卒·외교안보연구원)=지난 10월 13일 駐뉴욕 총영사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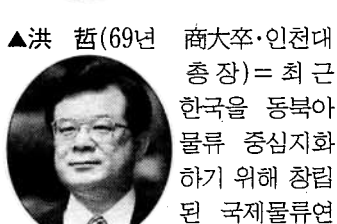


▲李相驥(69년 工大卒·인하대교수)=지난 9월 28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소속 에너지경제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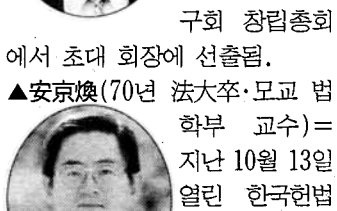
(KEEI) 제6대 원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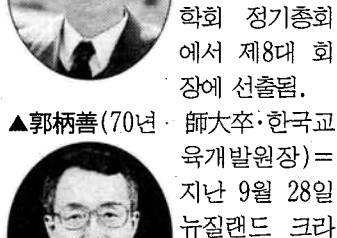
▲金勳東(69년 農大卒·농협경기지역본부장)=지난 10월 6일 신용보증기금 감사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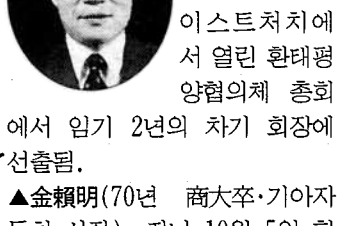
▲洪 哲(69년 商大卒·인천대총장)=최근 한국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하기 위해 창립된 국제물류연구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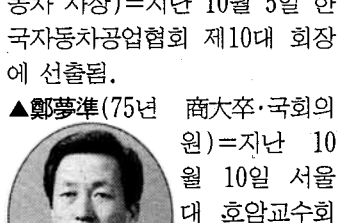
▲安京煥(70년 法大卒·모교 법학부 교수)=지난 10월 13일 열린 한국헌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8대 회장에 선출됨.



▲郭炳善(70년 師大卒·한국교육개발원장)=지난 9월 28일 뉴질랜드 크리스처처치에서 열린 한태평양협의체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차기 회장에 선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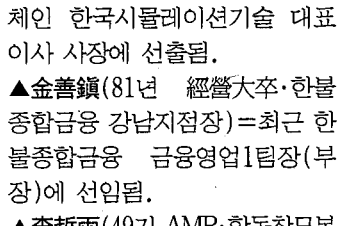
▲金淸明(70년 商大卒·기아자동차 사장)=지난 10월 5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제10대 회장에 선출됨.



▲鄭夢準(75년 商大卒·국회의원)=지난 10월 1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CEO 환경경영포럼 창립모임

에서 회장에 선출됨.

▲金知文(76년 工大卒·이지에듀 대표이사)=최근 CAE(컴퓨터에 의한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한국시뮬레이션기술 대표이사 사장에 선출됨.



▲金善鎭(81년 經營大卒·한불종합금융 강남지점장)=최근 한불종합금융 금융영업1팀장(부장)에 선임됨.

▲李哲雨(49기 AMP·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지난 10월 8일 해병대 사령관에 임명됨.

행사·출간

▲李海元(53년 法大卒·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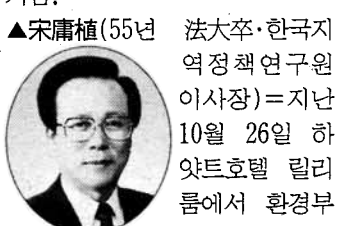
사회포럼 회장)=지난 10월 19일 롯데호텔 가네트룸에서 朴聖相 前 한국은행 총재를 초청,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제25회 조찬특별강연회를 가짐.

▲柳致松(53년 商大卒·한정회 회장)=지난 10월 23일 한국언론재단에서 朴東鎭, 韓昇洲, 孔魯明 前외무장관 등을 연사 및 토론자로 초청,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우덕 고문·美大同窓會長)=지난 10월 5~27일 갤러리우덕에서 「확장된 영역 속의

웃」이라는 주제로 기획전시회를 가짐.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10월 26일 하얏트호텔 릴리움에서 환경부

金明子(66년 文理大卒)장관을 초청, 「21세기 환경위기와 우리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제95회 정책토론회를 가짐.



▲閔丙峻(56년 師大卒·한국광고주협회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10월 11일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01

전국광고주대회」를 개최함. 또 16~18일까지 일본 도쿄 임페리얼호텔에서 열린 제48차 세계광고주대회에 참석, 각국의 광고관련 대표들을 만나 광고 발전방향 등을 논의함.



▲金后蘭(53년 師大入·한국여성문학인회 고문·「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이사장)=지난 10월 26일 사단

법인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 오픈식을 가짐.



▲黃仁政(58년 文理大卒·강원발전연구원장·전국시도연구원의회장)=지난 10월 11일 은행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지방경제발전과 지방자치」라는 주제로 협의회 워크숍 및 임시총회를 개최함.

▲金英淑(58년 師大卒·안양대교수)=최근 아주대 윤여흥 교수와 함께 「특수아 상담의 이해」(교육과학사刊)라는 저서를 출간함.

▲沈明鎬(58년 師大卒·모교 명

제23회 예술원 미술전

동문 9명 참여...30여 작품 선보

대한민국 예술원 미술분과 회원 20명이 지난 10월 10일부터 24일(예술원 미술관), 또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구미시 문화예술회관)까지 제23회 예술원 미술전을 개최했다.

이날 전시에는 李大源(45년 京城帝大卒), 白文基(50년 藝

術大卒), 李光魯(51년 工大卒), 權寧禹(51년 藝術大卒), 文學晉(52년 藝術大卒), 朴魯壽(52년 藝術大卒), 權純亨(55년 美大卒), 李信子(55년 美大卒), 閔庚甲(57년 美大卒)동문 등이 동양화, 서양화, 조각, 서예, 공예, 건축 분야 작품 37점을 선보였다.

원로들의 실내악 연주

安龍基·白雲昌동문 등 출연



安龍基



白雲昌



李玉姬

최근 우리 나라 현악계의 원로들이 모여 실내악을 선보였다.

지난 11월 9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한국음악협회 자문위원인 安龍基(57년 音大卒·비올라)·白雲昌(62년 音大卒·바이올린)동문 등이 중견 피아니스트 李玉姬(64년 音大

卒·코리안심포니 단원)동문과 앙상블을 이뤄 모차르트, 베토벤, 멘델스존의 작품을 연주했다.

이날 공연에서 원로 연주자들은 전성기와 같은 생동감 있고 중후한 연주로 청중들을 감동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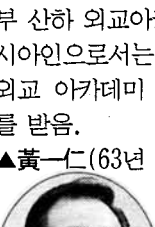
(變)



예 교수·한국 TS엘리트학회 회장)=지난 10월 15~16일 영국문화원에서 「21세기 엘리트 문학의 회고와 전망」 학술대회를 가짐.



▲李仁浩(55년 文理大入·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지난 9월 27일 한·러 외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러시아 외무



부 산하 외교아카데미로부터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러시아 외교 아카데미 명예 박사학위」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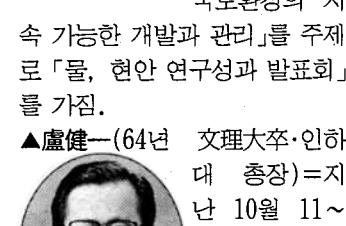
▲黃一仁(63년 工大卒·일건 건축 대표·한국건축가협회장)=지난 10월 15일 조선포에서 존 디앤더슨 미국건축가협회장과 「한·미 건축단체간 협약식」을 가짐.

▲徐丙喆(63년 文理大卒·통일연구원장)=지난 11월 1~2일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 방안」을 주제로 2001 협동연구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함.

▲陳哲平(63년 商大卒·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지난 11월 13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협회 창립 31주년 기념 리셉션을 가짐.



▲河珍圭(64년 工大卒·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지난 10월 24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수자원과 국토환경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리」를 주제로 「물, 현안 연구성과 발표회」를 가짐.



▲盧健一(64년 文理大卒·인하대 총장)=지난 10월 11~12일 프랑스 트아브르대에서 20개국 학자가 참가한 가운데 제3차 한·불 국제 학술대회를 가짐.

▲韓達鮮(64년 醫大卒·한림대총장)=지난 10월 19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청각 및 언어장애인 한마당 행사를 가짐.

▲姜 光(65년 美大卒·인천대부총장)=지난 10월 17일 인천구치소를 방문, 내부환경 조형을 위해 미술작품 276점을 기증함.

▲金明子(66년 文理大卒·환경



부 장관)=지난 11월 7~9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함.

▲金準次(63년 音大入·서울챔버앙상블 음악감독)=지난 10월 18일 예술의전당 리스아틀홀에서 하이든, 바하, 비발디, 보케리니, 쇼스타코비치 등의 작품으로 서울챔버앙상블 제21회 정기연주회를 가짐.

▲金周喆(67년 文理大卒·iTV경인방송 사장)=지난 10월 23~27일 중국 충칭(重慶)TV를 방문, 한·중 방송 프로그램 교환 및 공동제작 등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함.

▲李相驥(69년 工大卒·에너지경제연구원장)=지난 10월 23~24일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에서 UN/ESCAP과 공동으로 「동북아 전력개발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으며, 러시아 극동경제연구소와 연구협약 각서를 체결함.

▲張達重(69년 文理大卒·모교



정치학과 교수·서울대 통일포럼 위원장)=지난 9월 27일 모교 문화관에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과 남북한 의견대립」 통일논단을 가짐.

▲吳勳鎭(71년 文理大卒·前SBS 제작본부장)=지난 10월 12일 방일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01년도 하반기 저술·출판 지원대상자에 선정됨.

▲全京秀(71년 文理大卒·모교 인류학과 교수·비교문화연구소장)=지난 10월 25일 모교 관악캠퍼스 사회과학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중국 심양 화공학원 김상욱 교수를 초청, 「中國 古代 養生長壽術」이라는 주제로 제64회 비교문화연구소 집담회를 가짐.

▲徐康和(74년 新大院卒·대한언론인회 논설위원)=지난 10월 20일 方一榮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01년도 하반기 저술·출판 지원대상자에 선정됨.

▲沈之淵(75년 文理大卒·경남대 교수·한국정당학회장)=지난 10월 18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추계 학

술대회를 가짐.

▲鄭慶源(75년 美大卒·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장)=지난 10월 7~13일 서울 코엑스와 분당 코리아 디자인센터에서 「어울림」을 주제로 세계산업디자인대회(ICSID 2001 SEOUL)를 개최함.

▲朴聖姬(77년 家政大卒·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本報 論說委員)=지난 10월 12일 方一榮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01년도 하반기 저술·출판 지원대상자에 선정됨.

▲閔美蘭(77년 音大卒·공주교대 교수·「대전·충남 가야금 연주단 청·홍」대표)=지난 10월 23일 대전 평송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제7회 대전·충남 가야금 연주단 청·홍의 밤 행사를 개최함.

▲孫泰元(77년 行大院卒·한양대 교수·한국인사조직학회장)=지난 10월 13일 계명대 대명캠퍼스에서 「2001년

도 추계학술발표회 및 제5회 창업기업인상 시상식」을 가짐.

▲鄭斗彥(80년 社會大卒·한나라당 부대변인 겸 서대문을 지구당 위원장)=지난 10월 23일 울산대에서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를 주제로 특강을 함.

▲蔡成希(80년 音大卒·국립국악원 가야금 수석)=지난 9월 10일 서울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 朴喜德(81년 音大卒·국립국악학교 예술부장·대금)·동문, 慎惠英(81년 音大卒·전남대 강사·거문고)·동문 등과 함께 「3人3色 음악회」를 가짐.

▲申璋湜(82년 美大卒·국민대 교수)=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갤러리 우덕에서 「명상 - 금강산」이라는 주제로 작품전을 가짐.

▲元仁鍾(82년 美大卒·이화여대 교수)=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울 관훈동 선화랑에서 제15회 선미술상 수상전을 개최함.

▲姜同喆(83년 美大卒·왕립정밀주조연구소장)=지난 10월 20~31일 송파문화원 1층 전시관에서 「자연, 사람 그리고 믿음」이라는 주제로 청동정밀주조

구권의 패션과 젠더 및 섹슈얼리티까지 옷·몸·정신·개인·문화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있다. <푸른솔·값18,000원>

▲鄭斗彥(80년 社會大卒·한나라당 부대변인 겸 서대문을 지구당 위원장)=지난 10월 23일 울산대에서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를 주제로 특강을 함.

▲蔡成希(80년 音大卒·국립국악원 가야금 수석)=지난 9월 10일 서울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 朴喜德(81년 音大卒·국립국악학교 예술부장·대금)·동문, 慎惠英(81년 音大卒·전남대 강사·거문고)·동문 등과 함께 「3人3色 음악회」를 가짐.

▲申璋湜(82년 美大卒·국민대 교수)=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갤러리 우덕에서 「명상 - 금강산」이라는 주제로 작품전을 가짐.

▲元仁鍾(82년 美大卒·이화여대 교수)=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울 관훈동 선화랑에서 제15회 선미술상 수상전을 개최함.

▲姜同喆(83년 美大卒·왕립정밀주조연구소장)=지난 10월 20~31일 송파문화원 1층 전시관에서 「자연, 사람 그리고 믿음」이라는 주제로 청동정밀주조

작품전을 가짐.

▲徐敎一(84년 醫大卒·순천향대 총장)=지난 10월 13일 충남 아산 신창초등학교에서 의료봉사단과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펼침.

▲崔熙蓮(93년 音大卒·부산대 강사)=지난 11월 8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제2회 해금독주회를 개최, 「한범수류 해금산조」 「고양이 수염」 「계명곡」 등을 선보임.

▲金在哲(4기 AMP·한국무역협회장)=지난 9월 27일 고려대에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음. 또 10월 25일 한국의국어대에서 한국을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만든 공로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음.

▲金澈運(33기 AMP·한국물가협회장·충효에실전문동본부총재)=지난 10월 26일 향군회관에서 제3회 충효에 대상 시상식을 가짐.

▲朴尙東(2기 EPHPM·동서한방병원장·서부신문 회장·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동창회장)=지난 10월 11일

과 13일 각각 건설단체 한마음 체육대회와 강서구 등촌7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방 무료 진료를 실시함. 또 25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제12회 가곡의 밤 행사를 개최함. (정리=安興燮기자)

新刊

■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돼라

—韓萬靑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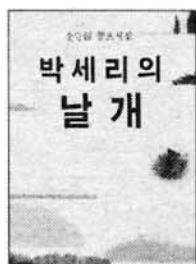
가능성 5% 미만의 확률 안에서 암을 이겨낸 韓萬靑(59년 醫大卒·前모교 병원장) 명예교수가 병을 싸워 이겨야 할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다스림의 대상으로 바라보라는 「암 친구론」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환자에게 찾아온 병을 가장 먼저 진단하는 방사선과 의사로서 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말기암 환자로서 그 동안 수많은 암 환자들의 면모를 지켜봤던 저자가 쓴 투병기이자 환자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중앙M&B·값12,000원>

■ 박세리의 날개

—金守經 著

대한병원 치과 과장인 金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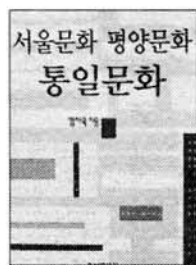


經(63년 齒大卒) 동문이 골프시집을 펴냈다.

4부로 나누어, 제1부는 박세리가 운동을 하게 된 동기와 성장과정, 프로입문, 그리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정신적인 배경 등을 다뤘다. 제2부는 우승했던 기억들을 정리했으며, 제3부는 박세리 주변의 세계적인 선수들,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등을 담았다. 제4부는 골프를 하면서 느끼는 자연과 여행에서의 고뇌 등을 기록했다. <골프헤럴드·값6,000원>

■ 서울문화 평양문화 통일문화

—林采郁 著



북방문제연구소 林采郁(64년 文理大卒) 부소장이 남북한 문화비교 연구서를 출간했다.

서울문화, 평양문화는 공간적으로 휴전선 이남과 이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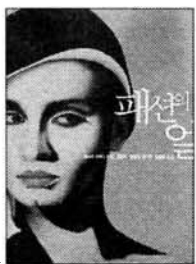
시간적으로 광복 후 오늘날까지의 문화를 이룬 것으로 통일 한국의 문화 폭을 넓히고 통일 문화를 형성하는데 바탕이 되는 것이다.

오랫동안 북한문화 분야를 천착해온 林동문은 작년 6·15 선언으로 서울과 평양이 직통으로 교류함에 따라 북한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인식에서 이 책을 썼다고. <조선일보사·값8,500원>

■ 패션의 얼굴

—정인희·함연자

·정수진·김정원 譯



호주 그리피스대 제니퍼 크레이크 교수의 저서 「The Face of Fashion」을 모교 가정대 의류학과 출신 동문 4명이 공동으로 번역했다.

정인희(90년卒·금오공대 전임강사), 함연자(92년卒·부산경상대학 전임강사), 정수진(94년卒·인터패션플래닝 마켓정보팀), 김정원(96년卒·패션시장조사 프리랜서)·동문이 한국어로 옮긴 이 책 속에는 그동안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패션사의 이면뿐 아니라 비서

公演

■ 바리톤 全奉求독창회

—11월 29일 세종문화회관

바리톤 全奉求(68년 音大卒) 동문(사진)이 오는 11월 29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를 주제로 독창회를 갖는다.



현재 경원대 음대 교수로 재직중인 全동문은 이날 공연에서 슈베르트의 가곡 「밤인사」, 「얼어버린 눈물」, 「보리수」, 「까마귀」, 「환상의 태양」, 「거리의 악사」 등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3486-9154>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조현선(01년 自然大卒)·군·홍은혜 양=11월 17일 12시 30분.

강동현(95년 人文大卒)·군·문금희 양=11월 17일 14시.

임재수(95년 人文大卒)·군·강미화 양=11월 18일 12시 30분.

강준호(01년 工大卒)·군·김진숙 양=11월 18일 15시 30분.

박진국(95년 工大卒)·군·강은규(95년 自然大卒)·양=11월 24일 12시 30분.

박종원(93년 社會大卒)·군·이서영 양=12월 1일 14시.

회비납부 술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2001년 9월 15일~2001년 10월 19일·一般: 2001년 9월 15일~2001년 10월 8일〉

회 장 단

▲부회장 李聖秀=50만원
▲부회장 李龍洛=1백만원
▲부회장 金學俊=50만원
▲부회장 金基鏞=1백만원

상임이사

▲李廷植 환대원동창회장=20만원

평생회비

▲공일근(60년 工大卒)=20만원
▲권희경(97년 看護大卒)=20만원
▲김종남(84년 獸醫大卒)=20만원
▲남기춘(39기 ACAD)=20만원
▲박건호(63년 商大卒)=20만원
▲성배영(66년 農大卒)=20만원
▲이종웅(69년 工大卒)=20만원
▲이준일(65년 文理大卒)=20만원
▲정동화(7기 EPHPM)=20만원
▲지주원(85년 家政大卒)=20만원
▲최대혁(85년 師大卒)=20만원

이 사

◇家政大學

▲우경자⁶⁵ 인하대 교수

◇看護大學

▲김채숙⁶⁶ 모교 의대 간호부

◇經營大學

▲조규근⁷⁷ 현대증권 부장

◇工科大學

▲강경찬⁷⁵ 서울폴리머 대표
▲고석구⁷⁵ 수자원공사 사장
▲고원호⁴⁸ (주)대한양행 회장
▲김생빈⁵⁸ 동국대 교수
▲김성배⁷² 현대건설 상무
▲김지섭⁵⁸ 한전기공 고문
▲김철수⁷⁴ 현대건설 이사
▲박동정⁵⁴ 전우개발용역 고문
▲박동훈⁷⁰ 현대건설 상무
▲박순자⁵⁴ 모교 명예교수
▲송철조⁶³ 한용ENG 대표
▲양정웅⁶⁸ 코아인코프레이터드
▲유간성⁶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이계환⁶⁶ 아키타운(주) 대표이사
▲이근모⁷⁹ 국토농증권 상무
▲이대락⁶⁶ 세미크론 대표
▲전웅진⁷⁰ 우진산업 사장
▲정병일⁵⁴ 풍원광업ENG
▲조창휘⁶³ 前고려산업개발
▲차정식⁶⁶ 기아자동차 부사장

◇農科大學

▲김경욱⁷⁵ 모교 교무부학장
▲김상호⁶² 대풍상사 대표
▲김장호⁷⁰ (주)럭키건설 대표
▲박진환⁵² 前농협전문대 학장
▲오민영⁵⁵ 前임업연구원 연구관
▲오상수⁷² 정문정보 총괄부사장
▲장규섭⁶⁵ 충남대 교수

▲정만재⁵⁹ 충북도교육위원

◇文理科大學

▲권혁조⁶⁹ 광운대 교수
▲김영구⁶⁶ 제일엔트라 사장
▲박범진⁶⁴ 前국회의원
▲박창정⁷³ 한국마사회 부회장
▲박호근⁷⁰ KIST 원장
▲엄준걸⁶⁵ NSTD 회장
▲오병남⁶³ 모교 교수
▲윤홍근⁶⁷ 前쌍용그룹 상무
▲이기원⁵⁵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성덕⁶⁰ 동아대 교수
▲전석홍⁵⁸ 前국회의원
▲정소성⁶⁹ 단국대 교수
▲정용두⁵⁷ 바울학회 회장

◇美術大學

▲권순형⁵⁵ 모교 명예교수
▲김 태⁵⁵ 모교 명예교수
▲김춘옥⁶⁸ 한국화 여성작가회
▲조성애⁶⁸ 판화가
▲주민숙⁶⁸ 숙명여대 교수

◇法科大學

▲강익엽⁴⁹ 변호사
▲김근대⁶⁷ 변호사
▲김동희⁶³ 모교 법대 학장
▲김영일⁶⁵ 국회의원
▲김용재⁵² 前대양도료상사
▲김종복⁷⁴ 산업은행 부부장
▲김태정⁶⁴ (주)로우시콤 대표
▲박명석⁵⁵ 세무회계사무소
▲박영준⁶⁵ 코리아리서치센터
▲박준서⁶⁴ 변호사
▲박홍식⁶² 변호사
▲박희태⁶¹ 국회의원
▲반현수⁶⁴ 변호사
▲배영길⁶⁹ 부경대 교수
▲변학남⁵⁵ 前감우회 사무처장
▲봉종현⁶¹ 前장은경제연구소
▲오규원⁶⁹ 산업은행 이사
▲이덕모⁷⁵ 변호사
▲이사목⁴⁹ 변호사
▲이창수⁵⁷ 새마을중앙연수원장
▲이해원⁵³ 공동체사회포럼 회장
▲전수일⁶² 광운대 교수
▲전웅진⁵⁷ (주)미주상사
▲제갈용우⁶⁸ 변호사
▲조주순⁶⁹ 타이가상사 대표
▲지홍원⁶⁴ 前대구고법원장
▲차정일⁶⁵ 변호사
▲최광률⁵⁸ 변호사
▲최석원⁵⁵ 우성문화재단 이사
▲최운상⁴⁸
▲한영광⁶⁷ 연합캐피탈 상임감사
▲한윤섭⁶² 새빛교회 목사
▲황영하⁶⁴
▲황창섭⁵⁷ 전화번호부 상무

◇師範大學

▲강영삼⁶³ 국민대 교수
▲김용근⁶⁹ 도봉중 교장
▲박찬구⁶⁰ 양재고 교장
▲신현식⁶⁰ 도곡중 교장
▲오민수⁶⁶ 한국자원연구소
▲오병문⁵² 동신대 교수
▲이관형⁶⁷ 서울교대 교수

▲임덕순⁶² 충북대 교수
▲정봉섭⁷² 신도림중 교장
▲조규삼⁵⁴ 前서울사대부고 교장
▲조태경⁵⁵ 동국대 명예교수

◇商科大學

▲고학모⁶⁰ 대주무역 사장
▲김배철⁵⁰ 건설감업 회장
▲김윤환⁶⁰ 고려검정공사 대표
▲김창진⁶² 풍감금속공업 대표
▲맹정주⁷¹ 한국증권금융 사장
▲민해영⁶⁰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박건호⁶³ 영흥철강(주) 대표
▲박근준⁶⁵ 대한제당(주) 고문
▲박길부⁶³ 예하출판사 대표
▲박수기⁵³ (주)제일정기 회장
▲박찬종⁶⁵ 아세아연구원 대표
▲박흥기⁷⁴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손희균⁵⁵ 前공주대 교수
▲송진호⁵⁵ 송우무역 대표
▲윤우진⁶⁵ 前외환은행 지점장
▲윤원배⁶⁹ 숙명여대 경상대학장
▲이계안⁷⁵ 현대캐피탈 회장
▲이병욱⁷⁴ 코오롱건설 상무
▲이영규⁶⁵ 마산 부민의원
▲이종순⁶⁶ 현대건설 전무
▲이태형⁶³ 前수자원공사 사장
▲이학갑⁶⁹ 대림요업 사장
▲이현락⁶⁶ 동아일보 전무
▲장종익⁶⁴ 대구리스 수석부사장
▲조문규⁶¹ 동화기업 상무
▲지치본⁶² 前나산그룹 기조실장

◇獸醫科大學

▲신현일⁶¹ 前자전거공업협회
▲어중원⁶⁹ (주)세죽 부사장
▲전동룡⁵⁵ 한국양돈산업 대표
▲조병왕⁶⁵ 구로구청 위생과
▲조사선⁷² 모교 교수
▲조휴익⁶³ 중부가축병원장

◇藥學大學

▲권오탁⁶⁴ 천지당약국 약사
▲문승만⁶⁰ 前제일약국 약사
▲서순철⁶⁴ 향도약국 약사
▲우재성⁷⁵ 세명약국 약사
▲이동원⁷¹ 새한제약 회장
▲이종지⁶⁷ 아마노우치 소장
▲임익근⁷⁶ 서울시 도봉구청장
▲장학순⁵¹ 신신제약 고문
▲정순간⁶² 삼진제약 전무

◇音樂大學

▲윤미용⁶⁹ 국립국악원장

◇醫科大學

▲강형운⁴⁹ 동산재활의원장
▲김명준⁶³ 김명준외과
▲김승원⁵⁵ 모교 교수
▲문명성⁵⁷ 강남성모병원 과장
▲박대관⁶¹ 박외과의원장
▲박조철⁵⁵ 신경정신과의원장
▲송익훈⁶⁴ 건강관리협회검진센터
▲송창섭⁵⁹ 노원 을지병원 내과
▲양승렬⁵⁷ 신경외과의원장
▲웅상길⁶⁴ 웅산부인과의원장
▲유태연⁶⁰ 피부과의원장
▲윤수중⁷⁹ 신경정신과의원장

▲전순영⁷¹ 정형외과의원장
▲정을삼⁶⁶ 전주예수병원 과장
▲지영일⁶⁶ 신일병원장
▲하재인⁵⁰ 하안과의원장

◇齒科大學

▲김기현⁶⁰ 마산치과의원장
▲김왕국⁵⁹ 치과의원장
▲김재곤⁵⁸ 치과의원장
▲김중두⁵⁹ 명성치과의원장
▲김홍석⁶⁵ 신림치과의원장
▲류재훈⁶⁹ 유치과의원장
▲유영세⁶⁶ 치과의원장
▲윤학영⁶⁸ 치과의원장
▲이석행⁶² 치과의원장
▲임채균⁵⁷ 치과의원장
▲정원용⁵⁸ 치과의원장
▲황규선⁶⁰ 前국회의원

◇大學院

▲김성환⁶³ 둔촌고 교장

◇經營大學院

▲정남진⁷⁶ 한빛은행 팀장

◇教育大學院

▲사종식⁷¹ 서라벌고 교장

◇新聞大學院

▲이명화⁶⁹ 덕성무역(주) 회장

◇行政大學院

▲김상영⁶⁵ 전자신문 대표
▲백상승⁷¹ 민족통일협의회장
▲서재근⁶⁴ 신한국창조운동본부

일 반

◇人文大學

▲강인선⁷⁶ ▲김광현⁶² ▲김능구⁶⁸
▲김대경⁶² ▲김민경⁹⁹ ▲박춘근⁹⁰
▲박홍준⁸⁹ ▲신언훈⁷⁸ ▲신용길⁷⁶
▲옥영재⁸⁹ ▲유석형⁷⁸ ▲임미화⁸⁹
▲정병운⁸² ▲정종욱⁹¹

◇社會科學大學

▲강덕운⁹⁰ ▲강영욱⁸⁷ ▲강준호⁹³
▲고종욱⁸² ▲고희관⁹² ▲국윤구⁸⁴
▲김건숙⁹¹ ▲김민주⁷⁹ ▲김부성⁷⁷
▲김상은⁹³ ▲김석완⁸⁹ ▲김성목⁸⁷
▲김연광⁸⁴ ▲김을진⁸⁴ ▲김재형⁸³
▲김주화⁹⁹ ▲김창섭⁷⁶ ▲김호성⁸⁵
▲남상용⁸⁰ ▲문우식⁸³ ▲민동룡⁹⁴
▲박 경⁸⁵ ▲박두선⁹² ▲박병진⁹⁰
▲박상훈⁷⁶ ▲박수진⁹³ ▲박용덕⁹⁰
▲박재용⁸¹ ▲박주영⁸⁷ ▲박창우⁸⁴
▲박춘섭⁸³ ▲박혜준⁹² ▲박희영⁸⁴
▲백두현⁸⁹ ▲백승주⁹⁰ ▲백승훈⁸³
▲서창목⁸⁴ ▲설대수⁸⁶ ▲손영철⁷⁸
▲손현덕⁸⁷ ▲신기덕⁷⁸ ▲안국환⁸³
▲안병화⁹³ ▲안상환⁸¹ ▲양기석⁸⁵
▲양기준⁷⁶ ▲양영철⁸⁹ ▲엄성호⁹³
▲원진영⁸⁸ ▲윤동영⁸³ ▲윤현근⁷⁸
▲이덕선⁸⁶ ▲이동호⁸⁵ ▲이동환⁸⁹
▲이동훈⁹⁵ ▲이동훈⁹⁹ ▲이명구⁷⁷
▲이상희⁸¹ ▲이성호⁷⁷ ▲이성호⁸⁶

▲이영목⁶⁷ ▲이윤섭⁶⁹ ▲이종규⁹⁰
▲이종주⁶⁹ ▲이주환⁹⁷ ▲이철훈⁸⁵
▲이태용⁷⁸ ▲이한규⁹⁸ ▲이혁찬⁸⁹
▲이호석⁸⁴ ▲임규옥⁸³ ▲장경찬⁷⁸
▲정동철⁸⁴ ▲정의선⁸⁶ ▲정태인⁸⁵
▲조방수⁶⁷ ▲조병구⁷⁹ ▲조상현⁸⁸
▲조영일⁸² ▲진수홍⁹⁰ ▲최병갑⁸¹
▲최병목⁸² ▲최수영⁹¹ ▲최용일⁷⁸
▲최현우⁹⁶ ▲한승희⁸⁵ ▲한지환⁸⁹
▲홍순권⁸⁰

◇自然科學大學

▲김용훈⁹⁵ ▲김종성⁹⁸ ▲김지원⁹⁹
▲박상용⁸⁹ ▲송 윤⁹² ▲안영인⁸⁸
▲이동화⁸⁷ ▲이병호⁷⁷ ▲이수용⁷⁹
▲이순걸⁷⁹ ▲이철의⁷⁹ ▲최석호⁸¹
▲홍준혁⁹²

◇家政大學

▲강창자⁶¹ ▲김정은⁹⁸ ▲김혜경⁷²
▲김혜경⁶¹ ▲류지수⁶⁷ ▲변기원⁸⁰
▲이미자⁶⁵ ▲이승희⁹⁹ ▲이혜상⁸²
▲정은희⁷⁶ ▲최규순⁶⁵ ▲최윤정⁸⁸
▲홍영선⁶¹

◇看護大學

▲권인각⁶¹ ▲김복희⁶⁴ ▲송현숙⁶⁰
▲신병순⁷⁸ ▲신숙희⁷⁰ ▲엄영란⁶⁰
▲이은숙⁷⁵ ▲하양숙⁷¹

◇經營大學

▲강동화⁶¹ ▲강문정⁹⁷ ▲강성민⁹⁰
▲권행민⁸² ▲김창호⁸⁶ ▲김충현⁸⁹
▲노재현⁸⁸ ▲문홍장⁷⁸ ▲박기준⁸⁹
▲박병철⁹¹ ▲박성훈⁸² ▲양석훈⁸⁹
▲원재연⁸⁶ ▲윤종빈⁷⁶ ▲이민호⁹⁷
▲이한목⁶⁴ ▲임진환⁹⁰ ▲정기호⁸²
▲정인철⁶⁶ ▲최준영⁸⁹ ▲하형석⁸³
▲홍기수⁹⁶

◇工科大學

▲강경태⁸⁸ ▲강근택⁷⁶ ▲강석호⁶¹
▲강신구⁶⁷ ▲강진구⁶⁵ ▲강태삼⁶⁶
▲강희동⁶¹ ▲고동일⁹⁷ ▲고성환⁷⁶
▲고시현⁷⁵ ▲고형석⁸⁹ ▲곽영조⁶²
▲구석근⁷⁵ ▲김경백⁹³ ▲김광웅⁶⁶
▲김근배⁶⁸ ▲김기풍⁵⁵ ▲김길우⁸⁰
▲김남식⁹⁵ ▲김도선⁷⁶ ▲김동성⁷⁷
▲김민찬⁸⁸ ▲김범준⁹⁵ ▲김병기⁸³
▲김삼근⁶⁸ ▲김상기⁸⁴ ▲김선호⁷⁹
▲김승조⁷³ ▲김승희⁸² ▲김시훈⁷²
▲김영태⁸² ▲김원수⁴⁹ ▲김재환⁹³
▲김창욱⁹⁵ ▲김창은⁷¹ ▲김천환⁶²
▲김태만⁹⁰ ▲김태영⁷⁸ ▲김관수⁶⁷
▲김화연⁶⁹ ▲김한영⁹⁷ ▲김형근⁷⁹
▲김희연⁶⁹ ▲나성웅⁷⁶ ▲나인구⁶⁷
▲남상원⁸¹ ▲문근주⁶⁷ ▲문효식⁹⁷
▲민만기⁶⁷ ▲박기철⁸⁰ ▲박노철⁷⁸
▲박민서⁸³ ▲박민서⁸³ ▲박상범⁷³
▲박승근⁸⁴ ▲박영복⁶⁷ ▲박옥구⁷³
▲박용철⁵⁹ ▲박우상⁵⁸ ▲박준대⁶⁷
▲박종규⁹² ▲박종효⁸¹ ▲박준기⁷²
▲박형수⁷⁵ ▲박호성⁷¹ ▲배근호⁷⁰
▲배상기⁷³ ▲배창국⁶⁷ ▲백윤해⁶²
▲서예교⁶⁹ ▲서진현⁸⁷ ▲석현수⁷⁴
▲송재국⁶⁶ ▲송준환⁶⁶ ▲송철상⁶⁵
▲신 영⁶⁵ ▲신성엽⁸⁶ ▲신승원⁹⁵
▲신영준⁹⁷ ▲안강환⁹⁷ ▲안용모⁷⁸

▲안정준64 ▲어 당72 ▲여운관57
▲오창석73 ▲오치환72 ▲유인섭74
▲유재현76 ▲유창동79 ▲윤문석74
▲윤영빈85 ▲윤조덕76 ▲윤태경83
▲윤태식64 ▲윤한석95 ▲이 석52
▲이강택92 ▲이기훈79 ▲이덕영81
▲이면희70 ▲이봉오62 ▲이성오82
▲이성유85 ▲이인석97 ▲이인태57
▲이재봉78 ▲이재윤88 ▲이정우69
▲이정해85 ▲이종원70 ▲이주락61
▲이주현98 ▲이중호48 ▲이체우85
▲이태호89 ▲이형구78 ▲이호진81
▲이흥명69 ▲이희발80 ▲임 용91
▲임건빈83 ▲임경준52 ▲임미나90
▲임영섭84 ▲임재경75 ▲장두희86
▲장성욱96 ▲장성호98 ▲장춘학90
▲장택희83 ▲장한기87 ▲전경석88
▲전성찬84 ▲전주영82 ▲전찬진69
▲전희상78 ▲정국환81 ▲정백기80
▲정선휘69 ▲정원지82 ▲정현일64
▲정홍용68 ▲조동기97 ▲조병훈94
▲조영조83 ▲조은오98 ▲조종수93
▲조진현92 ▲조태환69 ▲조희연71
▲주월동49 ▲지요한86 ▲지인상81
▲차국현81 ▲차용수73 ▲채경민82
▲채효식83 ▲천창률83 ▲최규명81
▲최동욱82 ▲최명진90 ▲최수한74
▲최우석95 ▲최태희89 ▲추연석80
▲표태원81 ▲하창한67 ▲한관수76
▲한민수79 ▲한병록49 ▲함태근80
▲홍성훈59 ▲홍순찬81 ▲홍현성72
▲황보한60

◇農科大學

▲고희종80 ▲권혁재57 ▲김 준49
▲김공환73 ▲김명찬99 ▲김병갑93
▲김병윤60 ▲김시한84 ▲김인재84
▲김재곤79 ▲김재운75 ▲김재운72
▲김태규65 ▲김혜선86 ▲박경호72
▲박수동82 ▲박재현53 ▲박종영72
▲박창서67 ▲박형주62 ▲박형훈60
▲서광원88 ▲서형하73 ▲선우정원65
▲송승환98 ▲송환창49 ▲신두철74
▲신창선93 ▲안승백88 ▲여병섭80
▲우병국80 ▲유진호94 ▲윤귀영59
▲윤병호69 ▲이강세62 ▲이규형64
▲이기창55 ▲이상범62 ▲이상욱62
▲이인호57 ▲이임영88 ▲이재근41
▲이재영56 ▲이종린79 ▲이중훈54
▲이철우65 ▲임병구66 ▲임인빈53
▲장석원64 ▲장용인74 ▲전재성79
▲정관출88 ▲정봉구59 ▲정순오78
▲정용문71 ▲정인범94 ▲조규태78
▲조수형63 ▲최공주67 ▲최무재59
▲최성환66 ▲최창욱94 ▲한기문98
▲홍성구87 ▲황무돈66

◇文理科大學

▲강인숙56 ▲강준수70 ▲고영길73
▲구연규56 ▲구자영72 ▲권오규67
▲기우탁63 ▲김경선70 ▲김기영59
▲김대천63 ▲김동선64 ▲김영성66
▲김영주75 ▲김유진51 ▲김재민71
▲김정란69 ▲김정호55 ▲김태정63
▲김홍중65 ▲남궁원65 ▲노무용67
▲노종호56 ▲박영일62 ▲박용길70
▲박용우71 ▲박원석75 ▲박은수50
▲서병철63 ▲서인수54 ▲성낙헌73
▲손재준56 ▲손정웅71 ▲송대성73
▲신용협65 ▲신현준65 ▲심문규75
▲심수보66 ▲안표순56 ▲양승영63
▲양재섭71 ▲엄성정75 ▲오인환61
▲우영의63 ▲원복중72 ▲유홍선60
▲윤대인74 ▲윤정욱68 ▲윤화자65
▲이 진64 ▲이경규48 ▲이경우74

▲이달형58 ▲이상근63 ▲이세경69
▲이종명73 ▲이진국75 ▲이현석70
▲장영태68 ▲장효상63 ▲전명애66
▲정일화65 ▲정찬용59 ▲정태철65
▲조 흥70 ▲조기안72 ▲조성술57
▲조익규48 ▲차재호56 ▲최 흥74
▲최시중63 ▲최인일70 ▲최흥천58
▲황국희66 ▲황봉운62 ▲황성일63

◇美術大學

▲강보경91 ▲김재훈86 ▲김정희85
▲박남희74 ▲박소영77 ▲박수현94
▲박연도60 ▲신용태64 ▲안문자61
▲안소자65 ▲오병인68 ▲오은식71
▲원인종82 ▲이지희84 ▲이찬진63
▲조봉구82 ▲조은숙81 ▲진광산66
▲진진숙66

◇法科大學

▲강봉수65 ▲강종구82 ▲경우근71
▲고영한78 ▲고준환65 ▲금경환98
▲김 숙76 ▲김경철76 ▲김거복72
▲김기영85 ▲김기현61 ▲김동윤87
▲김상현86 ▲김성훈65 ▲김진국85
▲김천수82 ▲김호중55 ▲명완식58
▲박강희87 ▲박경보74 ▲박광배86
▲박인호71 ▲박정식56 ▲배태연75
▲백인창74 ▲서돈각46 ▲서우정82
▲서희석75 ▲손경한73 ▲안병근82
▲염웅철80 ▲염원섭87 ▲오문희70
▲오석규62 ▲원은섭67 ▲유상범88
▲유상범88 ▲유재신54 ▲윤원만83
▲이강명68 ▲이건웅83 ▲이대영56
▲이대우66 ▲이선중47 ▲이수영72
▲이승량85 ▲이원달47 ▲이철신64
▲이후동86 ▲임숙경74 ▲임재영85
▲장인현75 ▲장재형76 ▲장흥덕65
▲조봉근63 ▲조승형57 ▲천기필59
▲최병구71 ▲최영현88 ▲최지영59
▲한양석84 ▲한영일61 ▲한웅재94
▲한형건54 ▲현규호57

◇師範大學

▲강성철76 ▲강세중73 ▲강한필64
▲구향모87 ▲김기춘72 ▲김도기62
▲김맹환78 ▲김명수75 ▲김명순65
▲김병주66 ▲김성열82 ▲김성태58
▲김수형65 ▲김영순62 ▲김옥선37
▲김옥성43 ▲김옥진62 ▲김일병69
▲김종규66 ▲김지경64 ▲김태갑58
▲김태홍79 ▲남경걸58 ▲민영오65
▲박대홍64 ▲박연수72 ▲박영배72
▲박영희58 ▲박정남61 ▲박제학67
▲박형준94 ▲박화영71 ▲변모은94
▲서풍일70 ▲성낙관61 ▲신승기87
▲안명희71 ▲안하운52 ▲우명길72
▲유명수65 ▲윤규태72 ▲윤재성75
▲이계현76 ▲이민부78 ▲이수찬56
▲이옥순54 ▲이재만56 ▲임병선56
▲임성모65 ▲임희준93 ▲장석제81
▲정기언76 ▲정순영41 ▲정영진60
▲정응근67 ▲정인형69 ▲정지오73
▲정지웅62 ▲정지창69 ▲정철정71
▲정택진63 ▲조규권80 ▲조규완57
▲조남진63 ▲조정희45 ▲최대혁85
▲최명욱71 ▲최병환74 ▲최수욱58
▲최영기81 ▲최정민95 ▲한만순76
▲한상길77 ▲호문룡60 ▲홍경민58
▲홍성일77 ▲홍종봉58

◇商科大學

▲고광범63 ▲김덕영67 ▲김도승65
▲김상남70 ▲김석환68 ▲김성주61
▲김승환71 ▲김경건66 ▲김영석66
▲김인기56 ▲김정우71 ▲김현주63

▲민은홍82 ▲박봉규64 ▲박승현71
▲박해용81 ▲배진규57 ▲선종승75
▲양해성72 ▲유석재73 ▲윤여훈71
▲이규형58 ▲이동수65 ▲이상도71
▲이승구65 ▲이준복71 ▲이형직71
▲전창모72 ▲정광섭74 ▲정기완56
▲정기홍69 ▲정우강68 ▲정택순57
▲진창갑59 ▲차태균75 ▲한상권58
▲황건호74

◇獸醫科大學

▲강경선64 ▲강석주59 ▲김경환64
▲김기동82 ▲김동신60 ▲김석근54
▲김승환82 ▲김원선58 ▲박수원91
▲박승도70 ▲박영수72 ▲박종묵94
▲배상호68 ▲안재홍80 ▲원세현86
▲이성모82 ▲이성복86 ▲임춘기81
▲정영민65 ▲하배현75

◇藥學大學

▲강 서82 ▲강탁립68 ▲강혜숙68
▲공선휘92 ▲김경규64 ▲김광규68
▲방근수94 ▲성홍희49 ▲손인자73
▲우용수87 ▲윤경순53 ▲윤의섭58
▲이진옥71 ▲이현태60 ▲장상길65
▲최리나88 ▲하성상64

◇音樂大學

▲김명주79 ▲김성빈92 ▲김신욱84
▲김우진92 ▲김은희88 ▲김현이87
▲김형순72 ▲노숙자60 ▲민희경82
▲박미혜83 ▲박윤희79 ▲박은경81
▲박정순60 ▲박종서82 ▲송복자88
▲송진화84 ▲신계후63 ▲신인철62
▲안혜선89 ▲양화연88 ▲여흥은60
▲오동일58 ▲오선영91 ▲오윤정91
▲오진희84 ▲원연희77 ▲유소양87
▲유태열55 ▲윤민호80 ▲이영자59
▲이재령84 ▲이정지66 ▲이창희84
▲이해성65 ▲이현숙68 ▲전정희73
▲정남희85 ▲정미향85 ▲정선기77
▲정호진92 ▲조원정90 ▲조재영91
▲차형근66 ▲최보금69 ▲최신애78
▲최연희93 ▲최영택79 ▲최해춘73
▲추승욱72 ▲편재희90 ▲홍주희86
▲황혜진94

◇醫科大學

▲강성하84 ▲강윤식79 ▲고광철85
▲고택수56 ▲김신아85 ▲김영휘82
▲김진하47 ▲민총기47 ▲박성원46
▲박종철79 ▲백승룡53 ▲심윤상69
▲안영민79 ▲안창일67 ▲양윤준85
▲오석환51 ▲오세기67 ▲오육근56
▲윤구섭85 ▲윤종구59 ▲이건재80
▲이근후83 ▲이승철75 ▲이영철83
▲이용찬89 ▲이형진52 ▲장봉환72
▲정명관97 ▲조병제76 ▲조성대73
▲조영선48 ▲홍성훈67 ▲황정득75

◇齒科大學

▲강현규61 ▲권지영98 ▲김기수84
▲김상철79 ▲김성우75 ▲김수경63
▲김종문56 ▲김종우72 ▲김태준81
▲박동귀59 ▲박동욱73 ▲박동일83
▲박종수66 ▲석광덕75 ▲선우양국47
▲오안민66 ▲오지연89 ▲유덕상84
▲유주하85 ▲윤경호75 ▲정윤석79
▲추창구78 ▲허현도81 ▲홍성준82

◇大學院

▲권숙표70 ▲김대용96 ▲김덕우87
▲김윤식82 ▲김준기83 ▲문수진77
▲박노균82 ▲박노균82 ▲박채용83
▲신길수89 ▲유한성66 ▲이육현91

▲이창수87 ▲임순택85 ▲임충혁89
▲장병기70 ▲채의업62

◇教育大學院

▲정상천73

◇保健大學院

▲권기철92 ▲김귀향83 ▲민정기81
▲박원길67 ▲서석권68 ▲이희자74

◇司法大學院

▲가재환70

◇新聞大學院

▲곽소진70

◇行政大學院

▲강성남82 ▲서일수69 ▲엄영보69
▲이호인89 ▲장민철88 ▲정재춘73

◇環境大學院

▲김태경87 ▲조근형81

◇최고경영자과정

▲강광식19 ▲강창구46 ▲고영진49
▲권석우15 ▲권오철41 ▲김기웅15
▲김동열40 ▲김부중42 ▲김선하33
▲김영재56 ▲김의철46 ▲김차서19
▲김향신42 ▲김현수45 ▲박창호45
▲박치현15 ▲방대영13 ▲배석두36
▲백규현55 ▲백정기4 ▲변정수40
▲송준강33 ▲신영무37 ▲신홍균30
▲우재영7 ▲이기종43 ▲이민기8
▲이석명12 ▲장황수13 ▲정근영50
▲정영대48 ▲정의순4 ▲정종태50
▲조진희29 ▲한진출32 ▲한형수47
▲홍두식47

◇최고산업전략과정

▲공소열13 ▲권태윤22 ▲김정원18
▲김희정21 ▲맹홍우11 ▲박기상13
▲박삼복23 ▲백성근22 ▲성기탁20
▲신용하7 ▲안정환11 ▲이근모1
▲이준철23 ▲조동하22 ▲최종천15
▲최평욱7

◇국가정책과정

▲김정규33 ▲김종달1 ▲김종웅39
▲노태극13 ▲안신환34 ▲오성균18
▲정동우6 ▲조인숙48

◇고급금융과정

▲강호식2 ▲김병기16 ▲김재규15
▲박종권5 ▲이경균11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김재경1 ▲최상석2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강영호6 ▲박창수5

◇보건의료정책최고관리자과정

▲권용기2 ▲김운하5 ▲윤석모6
▲조병욱6 ▲진선두7

◇해양정책최고과정

▲원 희1

합 계 : 36,220,000원
입회비 : 2,270,000원
총 계 : 479,518,298원

“동창회 국민패스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2001년 9월 발급 회원 명단)

개 인

◇人文大學

▲노동훈94 ▲박 준69

◇社會科學大學

▲김재욱86 ▲김준호98 ▲소우영86
▲유영욱95 ▲정철환90 ▲최연구89

◇自然科學大學

▲박정록95 ▲여유희97

◇看護大學

▲박해욱79

◇經營大學

▲최은석89

◇工科大學

▲김상원98 ▲김종민95 ▲노경호98
▲박상진90 ▲심현진97 ▲양정웅68
▲이영석96 ▲이정호95 ▲이진수79

◇農科大學

▲강성일87 ▲김기현95 ▲김시한84
▲김용희98 ▲김재동85 ▲나병호97
▲송성현97 ▲윤재식99 ▲이무영90
▲이병국85 ▲이상무89 ▲최봉근99

◇文理科大學

▲이진성75

◇美術大學

▲도원호97

◇法科大學

▲조지만95

◇師範大學

▲권혁훈93 ▲박노용85 ▲박대휘97
▲차영철94 ▲황대운90

◇商科大學

▲김양률57 ▲박장준71

◇獸醫科大學

▲오진식90

◇音樂大學

▲김지윤97 ▲문 진91 ▲송혜원99
▲임정희86

◇齒科大學

▲김형배84 ▲이철용77

◇大學院

▲정재열99

◇環境大學院

▲송장복79

◇최고산업전략과정

▲이명호20

서울大 人名錄(假題) 및 CD-ROM TITLE 발간을 시작합니다



서울대인의 인명록 제작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모르고 지내던 선·후배, 동기간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서울대인의 정체성을 묶어
어려운 시기에 서로간에 조그마한 힘이랄도 실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대 인명록』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대조류에 맞춰 회원명부와 더불어 각계의 『직업·직장별 명부』와 『CD-ROM TITLE』을
함께 구성하여 명실상부한 『서울대 인명록』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 발행일 : 2002년 6월경 ■ 자료마감 : 2002년 3월 30일
 - 내 용 : 회원명부, 직업·직장별 명부, CD-ROM TITLE
 - 회원인적사항 통보 및 문의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2002년 인명록 편집실
- 주소: 100-273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8-5 TEL: (02)704-8301(直) FAX: (02)704-8564 E-mail: snua2002@korea.com

절 취 선

◆ 동문님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2002년 인명록에 기록될 본인 및 주위에 알고 계시는 동문님들의 연락처를 아래양식에 의거하여 정확히
기재하셔서 우편, 팩스 또는 E-mail 등으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성명			한자성명			영문성명		
입학년도		졸업년도		단과대학		학 과		
직 장 명				부 서		직 위		
직장주소						직장전화		
직업 및 업종군		E-mail				핸 드 폰		
자택주소						자택전화		
주 요 약·경력								

◆ 단위별 동문회의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각 단위별 동문회(단과대학별, 학과별, 입학년도별, 직장별, 지부별 등)에서는 단체의 임원진 및
동문님들의 현황이 담겨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제작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동문의 소리

아름다운 서울대의 엘리트 노릇하기

白瑛姬(76년 美大卒)동서울대 공예디자인과 겸임교수

얼마 전에 우스개 소리를 하나 들었다. 『여자가 50이 되면 배웠건 안 배웠건 같고, 60이 되면 예뻐건 안 예뻐건 같고, 70이 되면 남편이 있거나 없거나 같고, 80이 되면 돈이 있거나 없거나 같고, 90이 되면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같다』라는 것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 들으면서 참 잘도 지어냈다고 감탄했다.

그런데 한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50대의 이야기다. 다른 건 몰라도 배웠다는 것은 표시가 나와 있지 않을까? 왜 그럴까? 물론 대한민국 無敵의 아줌

마들 때문이라는 것은 알지만, 나 나름대로 분석한 결론에 의하면 우리의 교육이 지혜의 교육이 아니고 지식의 교육만 있었다는데 기인하지 않을까 한다. 지식을 주입하기에만 급급했지, 진정한 삶의 의미나 아름다움을 고찰한다던가, 그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결과라고 본다.

특히 서울대학은 대한민국의 가장 엘리트그룹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엘리트답게 행동하고 있는가? 휴지를 꼭 휴지통에 버리고, 길에다 침을 뱉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시민의식도 없는 서울대인을 우리는 많이 본다. 나부터도 어두컴컴한 밤이면 슬금슬금 신호를 위반하고, 조금만 끼여드는 차가 있으면 경적을 울려댄다. 분리수거가 귀찮아 대충 쓰레기를 버리고, 전문 용어를 남발하며, 그 사람에게 맞는 말보다는 웅은 말임을 앞세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또 얼마나 했을까... 그러나 나의 코는 하늘을 찌른다. 왜냐하면 大서울대를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좀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서울대의



엘리트가 되어보자. 나 자신이 먼저 아주 작고 간단한 일부터 지금, 실행해보는 게 어떨까...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다이어트도 할 판인데 배가 조금 고프는 듯이 밥을 먹자(보기에도 우아하다). 먼저 인사하고 나이가 어려도 반말을 쓰지 말자. 크리넥스 종이 한 장도 꼭 반으로 잘라서 쓰자. 시내에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집안에서는 옷을 적당히 입어 난방비를 줄이자(몸매도 시원치 않은데 옷으로라도 가려야 하지 않을까). 물도 팔팔 뜬다 쓰지 말고 잠가면서 쓰자. 전등도 좀 줄이고

(밝게 해보야 주름살만 보이지 않는가) 웬만한 곳은 스탠드를 켜자. 전량 수입하는 커피대신(커피는 여성이 잘 걸리는 골다공증을 유발하고 콜레스테롤을 축적시킨다고 한다) 우리 녹차를 마시자. 빵 대신 밥과 시래기된장국을 먹자(성인병에 걸릴 염려가 없다). 간식은 고구마나 옥수수(수입오렌지 구멍구멍에 박혀있는 하얀 농약가루를 보고도 신토불이를 하지 않는 당신은 요즘 유행어로 『정말 왕입니다요』). 그런데 너무 간단하고 궁상맞다고? 그럼 이전 어떤가?

가끔씩은 불우이웃을 위해 후원금을 보내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한가지씩 하자(병원에 가면 면봉 마는 것도 자원봉사자가 한다). 남의 말을 경청하자(중간에 나서지 말고). 항상 웃으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자. 이런 좀 어려운가? 그럼 이것만은 하지 말자.

절대 잘난 척을 하지 말자!

구경꾼보다는 주인공이 되고 싶다

金斗鉉(85년 齒大卒)김두현치과 원장

『가을 잎 찬바람에 흠뻑 젖어 날리면 캠퍼스 잔디 위엔 또 다시 황금물결...』 이제 나는 이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

나는 정말로 제 한 몸 추스르지도 못한 채 대학을 마친 후 쫓겨오듯 서울을 떠나 이북이 고향이신 아버지와 함께 경기도 파주에 동지를 틀었다. 어쩌다 흘러 들어온 곳은 아니었으므로 그런 대로 대학시절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나누었으며 사랑하고 믿는 법을 알고자 노력했다. 그러다가도 가을만 되면 왜 그렇게 마음이 흠뻑 젖는지 종잡을

수 없는 허전함과 자괴감에 몸서리치고는 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것을 아내가 제일 먼저 눈치채고는 아무데나 마음 닿는 곳에 다녀오라고 웃가지를 쟁겨서 쥐어 주고는 깊은 눈으로 위로를 했다. 남들은 무슨 청승이냐고 실소를 보냈지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짧은 얼마간의 외도로 당당한 삶을 되찾을 수는 없었더라도 최소한 중요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는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살다보면 그럴 수 있지, 뭐』라는 말과 함께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고 남의 눈치를 살피며

사는데 익숙하게 되었다. 드디어 누군가 나보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창조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라』고 외쳤을 때에도 그저 미소만 보내는 호인(?)이 된 것이다. 사람 좋다는 객쩍은 소리에서부터 우유부단하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그대 내 마음 편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으로 황희 정승 따로 없다고 자위하며 살았다.

그러던 중에 약 2년 전 어느 날인가 거울 속의 나에게 호된 꾸지람을 듣고는 며칠을 앓았다. 어설픈 휴머니스트가 되기 보다는 차라리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요제프 키르쉬너』의 주장



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전제 하에 남보다 나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보자 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제부터는 나의 행복이 우선이다. 그리고 남은 것은 되돌려준다. 내가 먼저 시작하고 그들도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밝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좋아 보였다. 변화 당하는 내가 아니라 변화시키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먼저 가 있어야 했으므로 생활에는 활기가 생기게 되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끔 해야 했으므로 앞서서 나아가야 했다. 나를 당당하게 하지 못했던 나의 두려움은 결국 현실의 벽에 있었던 것이다. 그 때부터는 벽을 넘어 현실을 내려다보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마흔이 넘어서야 다르게 보고 생각하고 느끼다니 바보 같은 일이라는 하였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가을에 여러 곳에서 여러 인생을 보았으니 그것 또한 재산이려니 하니까.

2년 동안은 가을이 와도 그 노래는 부르지 않았다. 아내의 깊은 눈은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었으며 올해는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올 예정이다. 지금은 여러분처럼 나도 마냥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서울대 콤플렉스」에 대한 콤플렉스

金 燦(90년 社會大卒)KBS 정책기획실 프로듀서

학교의 꿈을 떠나 사회에 나와 그 만만치 않음을 절절히 느끼며 산지 9년이다. 지난 9년 동안, 직장에서 내가 서울대학교 출신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내 재주가 시원치 않아 囊中之錐가 되지 못한 탓이 크지만 다른 이유는 나 스스로 서울대 출신임을 감추려 했기 때문이다. 바로 내가 서울대 콤플렉스를 가졌기 때문이다.

흔히 서울대 콤플렉스라는 것은 서울대에 가지 못한 사람이 가진 열등감으로 안다. 하지만 졸업생인 내가 가진 서울대 콤플렉스도 있다. 아니 정확히 말

하자면 피해의식에 따른 피해의식이다. 무엇이 그 뿌리일까? 꿈이 스스로의 기억을 되짚어 본다. 대학 1학년 무렵, 외부 여학생들과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상대방 여학생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서울대생이라 그렇다는 식으로 받아들였다. 그녀가 말한 「그렇다」는 의미는 일종의 「잘난 체 한다」, 「오스댄다」, 「남을 무시한다」 등의 의미였다. 또 고향 친구들과 사이에서도 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자주 오해하는 그들을 잃고 싶지 않아, 난 나의 생각보다 훨씬 유치하고 거칠게 말하고 무

식하고 털털한 약간 과장된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그제야 나를 편하게 해주곤 했다.

결국 분명한 것은 이른바 「서울대 콤플렉스」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 결과 서울대 재학생 및 출신학생 모두가 그 콤플렉스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바로 자부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부심이 급기시 되고 오로지 겸손만을 강요받은 것이다. 자신을 낮추고 낮추어야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의 콤플렉스가 되어버



린 것이다.

물론, 서울대 출신을 불편하게 보는 이유 중 큰 것은 서울대 출신들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까닭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 잘 못했던 말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집단인가, 아니면 기대에 비해 부족한 것인가? 서울대 출신이 싸잡아 이야기할 만큼 결속력 있는 집단이구나 한 것인가? 다른 비판

의 눈이 무서워 스스로를 낮추고 만나기를 주저하고 서로 공개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큰일이나 난 것처럼 피하는 서울대 출신들 아닌가! 서울대 망국론이 아니라 다른 대학 망국론을 펼치면 그 결과가 이렇게 조용하겠는가!

이 기회에 감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 사회의 눈을 피해 자꾸 낮추려고만 하지 말고 욕을 먹어도 자부심을 드러내자는 말이다. 다만 그 자부심이 오만이 아님을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를 상대로 증명해 보이면 된다. 너무나 당연하고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말을 주장하는 것은 「서울대 콤플렉스에 대한 콤플렉스」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결과가 우리사회 전체의 하향 평준화일 뿐이기 때문이다.